

碩士學位請求論文

가구에 대한 의식 및 소유 실태에 관한 연구

- 제주도를 중심으로 -

指導教授 김 봉 애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家政教育專攻

이 정 립

1997년 2월

가구에 대한 의식 및 소유 실태에 관한 연구
-제주도를 중심으로-

指導教授 김 봉 애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6年 10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家政教育專攻

提出者 이 정 립



이정림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6年 12月 日

審査委員長 金 惠 淑 
審査委員 崔 棟 皓 
審査委員 金 鳳 愛 

가구에 대한 의식 및 소유 실태에 관한 연구
- 제주도를 중심으로 -

이 정 립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지도교수 김봉애

가구는 주택과 거주자간에 일상생활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즉 가구는 주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가구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가구에 대한 의식을 조사, 분석하였고, 이들 요인에 따른 가구 소유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은 문헌고찰을 통해 22개의 현대가구의 목록을 작성하였고 전통가구는 제주도 각 지역의 가구가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 조사를 통해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육지부의 전통가구를 중심으로 현존하는 제주도 전통가구를 포함시켜 대표적인 32개의 목록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가구 소유 실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주택의 일반적 특성, 가구에 대한 의식을 조사할 수 있는 문항을 만들었다. 행정구역별 기준으로 제주도를 여섯개 지역으로 나누어 주부 1200명을 대상으로 가구 소유 실태를 조사하였고 조사기간은 1996년 2월~6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분석방법은 SAS통계처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주택의 일반적 특성, 가구의 소유실태는 빈도분석으로, 가구에 대한 의식 분석은 χ^2 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첫째, 가구에 대한 의식을 보면 수납공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정도는 $p < 0.001$ 에서 유의한 차를 보였는데 시지역에서 긍정의 응답비율이 높았다. 중고가구에 대한 의식을 보면 낡은 가구를 고쳐서 계속 사용하거나 친분이 있는 사람과 교환해서 사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가구 사용 의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에 있어서는 '보통'이라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나 불만상태도 아니고 만족상태도 아닌 중간입장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전통가구에 대한 의식은 '전통가구가 친밀감을 준다'는 호감도가 높게 나타났고, 인지정도에 있어 $p < 0.01$ 수준에서 차를 보였는데 시지역에서 전통가구의 명칭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 전통가구에 대한 가치부여는 대체적으로 높았고 전통가구에 대한 적극적 활용의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본 논문은 1997년 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둘째 전통가구의 소유 실태는 평균 20% 정도의 소유율을 보였다. 특히 뒤주, 반다지, 찬탁, 소반은 5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기구류는 제주시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고, 탁자류는 북군 서쪽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상(床)류는 북군 서쪽과 남군 동쪽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고, 수납용장류는 북군 동쪽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평균 소유율을 비교해 보면 지역간에 큰 차이는 없었으나, 머리장, 문갑, 병풍, 발, 돛자리는 시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현대가구 소유 실태는 평균 47% 정도로 전통가구보다 2배 이상의 소유율을 보였다. 그중 수납용 가구인 옷장, 이불장의 경우 80% 이상의 높은 소유율을 보였고, 책상, 책장, 서랍장은 60% 이상의 소유율을 보였다. 장류는 제주시에서 가장 높은 소유율을 보였고, 의자류, 소파류, 탁자류, 기타 가구류는 서귀포시에서 가장 높은 소유율을 보였다. 그리고 침대류는 북군 서쪽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지역과 시외지역을 비교하였을 때는 시지역의 현대가구 소유율이 10% 이상 높게 나타났다.

셋째 소유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전통가구는 집단간에 소유율의 차이를 보이는 요인은 없었고, 현대가구는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 주택구조에서는 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방의 수가 4개 이상인 주택, 자가주택, 고학력, 고소득일수록 소유율이 높게 나타났다.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	2
3. 연구의 제한점	2
II. 이론적 배경	4
1. 가구(家具)의 역사	4
2. 전통가구	5
3. 현대가구	9
III. 연구내용 및 방법	12
1. 연구모형	12
2. 조사내용 및 방법	13
1) 문헌조사, 실물조사, 질문지조사	13
2) 조사지역의 선정	14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15
IV. 연구결과 및 해석	16
1. 조사대상자와 주택의 일반적 특성	16
2. 가구에 대한 의식	18
3. 가구 소유 실태	23
1) 전통가구 소유 실태	23
2) 현대가구 소유 실태	33
4. 현대가구와 전통가구 소유율 비교	40
IV. 요약 및 결론	42
참고문헌	44
Abstract	47
부 록	49

표 차 례

<표 1> 전통가구의 분류	6
<표 2> 현대가구 분류	11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7
<표 4> 주택의 일반적 특성	18
<표 5> 가구에 대한 일반적 의식	20
<표 6> 전통가구에 대한 의식	21
<표 7>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 전통가구 소유 실태	25
<표 8> 주택유형을 기준으로 한 전통가구 소유 실태	26
<표 9> 주택구조를 기준으로 한 전통가구 소유 실태	27
<표 10> 거실, 식당, 부엌을 제외한 방의 수를 기준으로 한 전통가구 소유 실태	28
<표 11> 연령을 기준으로 한 전통가구 소유 실태	29
<표 12> 학력을 기준으로 한 전통가구 소유 실태	30
<표 13> 소득을 기준으로 한 전통가구 소유 실태	31
<표 14> 가족 수를 기준으로 한 전통가구 소유 실태	32
<표 15> 주택의 소유여부를 기준으로 한 전통가구 소유 실태	32
<표 16>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 현대가구 소유 실태	34
<표 17> 주택유형을 기준으로 한 현대가구의 소유 실태	35
<표 18> 주택구조를 기준으로 한 현대가구의 소유 실태	36
<표 19> 거실, 식당, 부엌을 제외한 방의 수를 기준으로 한 현대가구 소유 실태	36
<표 20> 연령을 기준으로 한 현대가구 소유 실태	37
<표 21> 학력을 기준으로 한 현대 가구소유 실태	38
<표 22> 소득을 기준으로 한 현대가구 소유 실태	38
<표 23> 가족수를 기준으로 한 현대가구 소유 실태	39
<표 24> 주택의 소유여부를 기준으로 한 현대가구 소유 실태	39
<표 25>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수	40
<표 26> 방에 따른 가구의 비율	41

그림 차례

<그림 1> 연구과정 흐름도	12
<그림 2> 지역분리와 조사지역의 위치	15
<그림 3> 전통가구와 현대가구의 소유율 비교	4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의 일상생활은 과거부터 건물 혹은 그와 유사한 형태에서 이루어졌으며, 건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가구를 이용하여 작업의 능률을 높이며 편리와 안락을 추구하였다. 이것은 가구가 신체를 지탱하고 우리의 행동과 생활양식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인간과 건물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성기·김일진¹⁾은, 가구는 인간과 건물사이에 있는 유희유와 같아서 건물은 가구라는 매체를 통해서 비로소 인간에게 사용되며, 인간은 가구를 통해서 건물을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사용한다. 그리고 가구는 건물과 인간 사이에서 가사의 능률, 휴식, 가족 구성원간의 상호작용 등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거공간에서 우리의 인체에 가장 가까운 도구가 되며, 최종적인 편리함과 즐거움은 가구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19세기 개혁운동과 20세기의 산업화된 기술의 수용에 있어 교량적인 역할을 한 근대 건축가인 Frank Lloyd Wright는 가구를 건물의 일부로 생각하여 붙박이 가구를 주택의 개념에 도입하였고, Charles Moore는 거실 바닥을 여러층의 단으로 만들어 걸터앉고 누울 수 있게 함으로써 소파와 같은 가구를 필요없게 만들었다. 이것은 가구를 건축의 일부로 취급한 극단적인 예지만, 가구는 대화, 식사, 수면, 휴식, 수납, 작업 등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실용적인 생활용품이자 필수품임을 말해준다.

이렇게 볼 때 가구는 주생활에 대한 만족과 직접적 관련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건축 혹은 주택에 대한 연구에 비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와 관련한 과거의 연구는 건축사, 평면형, 지붕구조 등 주택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가구나 실내장식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주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가구에 대한 것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가구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선행

1) 조성기·김일진(1983), 「주거학」, 동명사.

연구의 성격으로 가구 소유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가구 소유 실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혹은 가구에 대한 의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집단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 대한 분석은 가구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현대의 주거 공간에서 보급이 증가되어 가는 현대가구와 소멸해 가는 전통가구의 조화의 범위를 모색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으며, 제주도와 관련된 이 분야의 연구가 부족하므로 그 기본이 되는 가구 소유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이후 연구의 자료가 될 수 있고, 육지부와는 다른 제주도 문화에 관한 여러 분야의 연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

이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의 가구에 대한 의식을 분석하고 소유실태를 파악하여 가구 활용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와 주택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여 분석한다. 둘째, 가구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여 분석한다. 셋째, 전통가구와 현대가구의 소유실태를 조사하여 분석한다.

3. 연구의 제한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제주도는 행정구역상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4개 지역으로 구분하나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동서간의 차이가 있을 경우를 고려하여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을 각각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 총 여섯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지의 배부시 지역별 분배는 동서남북으로 균일하게 이루어졌으나, 일주도로를 중심으로 조사하여 중산간 마을은 제외되었고 중산간마을에 대한 지역적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오차는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1948년 4·3사건으로 많은 목가구가 소실되어 제주도 전통가구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였다. 그래서 전통가구에 대한 설문지 조사는 육지부 전통가구의 그림을 주로

제시하고, 제주도 전통가구의 그림을 보완적으로 사용하였다.

셋째, 지역을 기준으로 표집하였기 때문에 지역별 변인의 비교는 용이하였으나, 그 밖의 인구 사회학적 변인 등에서는 빈도가 10 이하의 낮은 항목이 발생하여, 그 집단에 대한 설득력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었다.

넷째, 조사대상자 집단이 갖고 있는 가구에 대한 의식의 측정 문항은 완전히 표준화된 것은 아니며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가구(家具)의 역사

가구는 고정적인 건축에 대해 움직일 수 있는 도구 또는 실내의 장비를 갖추는 furnishing을 의미한다. 독일어로는 möbel, 불어로는 mobilier라 하는데, '움직이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영어로는 가구를 furniture라 하며 여기에는 '설비된 용구', '장비구(裝備具)'란 뜻이 있다. 즉 가구는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고정된 것은 제외되었으나 최근에는 가로등이나 우체통, 쓰레기통 등도 street furniture라고 하여 가구의 영역이 크게 확장되었다. 즉 넓은 의미로 가구는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도구를 가구라 정의할 수 있다.

Edward Lucie-Smith는 가구의 역사를 '인간이 만든 가공물의 영역에서 매우 모호한 부분'이라고 표현하면서도 반면 일상생활에서 가구를 사용한다는 것은 원시적이고 동물적인 생활의 습성에서 '문명의 차원으로 진입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문명의 진입'으로 표현하는 가구의 근원을 찾다보면 걸터 앉거나 잠자리로 사용되었을 자연상태의 편안한 바윗돌로 추정된다. 인류 최초의 가구는 영국 스코틀랜드 북쪽 Orkney제도의 Skra Bra 주거지에서 발견된 신석기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원시인들은 움집이나 동굴 주거에 바윗돌이 벽면으로부터 돌출되어 있으면 적극적인 사용을 위해 표면에 손질을 가하여 사용하였으며, 이것이 불박이 가구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서구 주거의 벽장은 19세기 말 주택설계자들이 벽면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후, 20세기에 들어 오늘날에 쓰이는 것 같은 불박이 가구가 고안되어 주거에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원시문화 시대에 사용되었던 독립적인 가동(可動)가구의 효시는 달아맨 침대와 매트²⁾ 등이었으며 그 지방의 기후 여건에 따라 동물의 가죽이나 갈대잎과 같은 풀잎이 재료로 사용되었고, 이와 같은 가구들이 고대와 중세를 거쳐서 각각의 독립적인 가구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초기 문명단계에서 가구의 존재는 주로 사회적 신분의 상징

2) 윤장섭, 「주거학」, 교문사, p. 243.

으로서 지위와 역할의 구별을 위한 일종의 상징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었다. 이집트 18왕조 투탄카멘왕의 무덤에서 출토된 의자들의 주된 기능은 요즘과 같이 일상생활에서의 보편적 기능보다는 절대왕권의 신성함을 성역화하기 위한 것들이었으며, 이러한 성격은 19세기초까지도 이어졌다. 우리나라 통일신라시대에도 건축물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내장재를 비롯한 가구의 사용에 신분상의 차이를 두었다는 기록이 있다.³⁾

즉, 가구의 보편적 기능이 수행되기 시작한 것은 상대적으로 최근의 일이며 이러한 기능적 수행은 일반시민계급의 성장과 함께 점차 획득되어져 왔다. 즉 가구의 존재성이 신분적 구별을 위한 기능으로부터 그 자체의 순수한 기능으로 정의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중엽이후 특히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적 진보와 관련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대가구 유물이 거의 없으나, 출토된 채화칠(彩畵漆)협⁴⁾에 의해 고조선 말기부터 칠기가 발달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고구려 쌍영총, 무용총, 각저총 벽화의 가구는 적어도 1500년 전 고구려의 안방에는 평상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국가구가 일반적으로 보편화되고 독특한 조형미를 나타낸 것은 조선시대이며, 한국가구의 대중화는 1960년대에 가구산업의 대량생산체제에 접어들면서부터가 본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전통가구

전통가구는, 조선시대부터 일제시대를 거쳐 1960년대 이전까지의 가구를 전통가구로 보았으며 그리고 현대에 제작되었으나 조선시대 가구의 모양을 갖춘 가구도 전통가구로 간주하였다. 한식의 전통가구는 나무결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과 천연재질을 이용하여 그 쓰임새에 맞게 손으로 잘 다듬어진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고 과다한 장식을 하지 않아 소박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 또한 좌식생활에 잘 맞도록 그 크기와 치수 및 규격 등이 매우 자연스러우며 문양에 따라 부귀와 안녕 등 그 시대 사람들의 염원을 나타냈었다.

가구 제작시는 쇠못이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대나무 못이나 부분적인 접착처리

3) 윤장섭(1991), 「한국건축사」, 동명사, p. 144.

4) 평안남도 대동군 용연면 남정리 제116호분에서 출토된 옷상자.

를 사용하여 가구 짜임이나 이음새가 견고하며, 주재료는 자작나무, 느티나무, 참나무, 호도나무, 밤나무, 오동나무, 벗나무, 단풍나무, 박달나무, 향나무, 소나무 등이 쓰였다. 전통가구의 종류는 현대가구에 비해 분류된 기존의 연구가 적으나 윤복자와 지순, 윤장섭, 최목화가 분류한 것을 보면 <표 1>과 같다. 윤장섭은 가구와 기구로 분류하였고, 최목화는 가구가 놓이는 위치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표 1> 전통가구의 분류

학자	가구의 분류		자료원
윤복자 지순 (1992)	층장, 머리장, 의걸이장, 책장, 농, 반다지, 함, 문갑, 서안, 경상, 탁자, 찬장, 찬탁, 소반		기초주거학 (신광출판사)
윤장섭 (1992)	가구	장, 농, 반다지, 함·케, 탁자, 책상, 문갑, 경대	주거학 (교문사)
	기구	평상, 병풍, 돛자리, 발·방장, 합지박, 뒤주, 소반	
최목화 (1979)	안방가구	단층장류, 이층장류, 삼층장류, 이층농류, 반다지류	현대생활에서 고가구의 용도분류와 관심도 조사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청가구	뒤주	
	사랑방가구	사방탁자류, 책장류, 문갑류	
	* 목공가구 중 형태가 크고, 사용빈도가 높은 가구만 분류		

전통가구의 종류에 따른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장

장은 길이가 긴 하나의 판재로 층널을 구성하여 각 층이 분리되지 않는 가구로 2·3층이 대부분이다. 전체의 하중을 지탱하기 위해 층널은 두꺼운 판재를 이용하며 네기둥 또한 굵고 튼튼한 재질을 필수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삼층장 중 크기가 높은 것은 운반을 고려하여 3층만 분리되도록 짠 것도 있다. 형태에 따라 1층, 2층, 3층장으로 나뉘고, 용도에 따라 머릿장, 의걸이장, 솜장, 편장등이 있으며, 재료에 따라 순수하게 나무의 목리(木理)를 살린 것, 죽장, 나전장, 화초장 등이 있다.

(2) 농

농은 장과 더불어 안방가구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같은 크기의 케를 2층 또는 3층으로 포개놓도록 만든 것이다. 농의 포개놓은 외형은 장과 별 차이가 없으나 구조상 단위체제를 갖고 있고, 장의 경우 최상부에 장의 폭보다 넓은 개판(蓋板)이 있으나 농

은 개판이 달려있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3) 반다지

반다지는 반쪽을 여닫는 데서 붙여진 이름인데, 의복·책·두루마기·제기 등 많은 종류의 물품을 보관하고 윗면에 항아리나 소품을 올려놓거나 이불을 쌓기도 하는 다목적 가구이다.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사용되었고 각 지방마다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다. 제주형 반다지는 실패형 경첩을 붙이는 것이 특징이다.

(4) 함

함은 물건을 넣도록 만든 상자인데 아래쪽이 깊고 위뚜껑이 얇게 판자로 짠 것을 말한다. 보통 상부 전면을 뚜껑으로 만들어 열도록 되어 있다. 혼인 때 쓰이는 채단함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5) 케

케의 사전적 의미는 나무로 짜서 물건을 넣어두는 장방형의 가구이다. 즉 그 기능이 매우 다양함을 말하는데 그 용도에 따라서 돈케·실케·행장케·도장케·잡케 등 수장하는 물건의 이름을 사용한다. 외형은 전면이나 상부를 두부분으로 나누어 경첩을 달고, 한 부분은 열도록 되어 있다. 제주도 케의 일반적 형태는 상부 개폐식이며, '장케'는 가로 길이 길이가 긴 것이 특징이며, 음식, 옷, 패물, 유서 등 다양함 물품을 보관하였다.

(6) 탁자

탁자는 전통적인 문방가구로서 가장 독특한 한식가구에 속한다. 탁자에는 책탁자·사방탁자·찬탁자·탁자장 등이 있으며 보통 2층·3층 또는 4층의 것이 사용된다. 사방탁자는 전부 뼈대만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래 한 층을 막고 문을 달아서 수납용으로 사용한다. 이것은 수직적인 가구에 장형식을 취함으로써 안정감을 갖게 하는 배려이기도 하나, 문갑과 같이 잡다한 소품을 수장하려는 실용적인 측면이 있다. 현대가구에서 테이블의 의미인 탁자와는 다르며 오히려 책꽂이나 장식대 성격의 가구이다.

(7) 책상

책상은 글을 읽거나 글씨를 쓸 때 사용되며 가구로 책상에는 케상과 경상의 두 종류가 있다. 케상은 일반 민가에서 사용되었으며 직선적이고 단순한 형태이며, 경상은 사찰에서 불경을 읽을 때 사용되었던 것으로 후에 일반 가정의 사랑방에서도 사용되

었다. 책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끝 부분에 두루마리귀를 붙인 것이 특징이다.

(8) 문갑

각종 문방구와 간단한 문서 등을 임시로 치워두기 위하여 실내에 비치하는 가구로 문구갑의 준말이다. 소형 문방가구이나 여러가지 작은 기물들을 수장할 수 있으며 그 윗면은 완상품을 진열하는 진열대의 역할을 겸하게 되어 사랑방 뿐만 아니라 안방에서도 사용된다.

(9) 경대

경대는 여자가 혼인할 때 가지고 가는 중요한 혼수품의 하나로서 화장용 면경과 화장품함을 겸한 가구이며 보통 화려하게 장식한다. 전통적인 옛날 경대의 일반적인 형태는 하단에 여닫이 문이 있으며 내부에는 화장도구를 넣는 서랍이 달려 있고 뚜껑 윗면 내부에는 거울이 달려 있어 뚜껑을 열어서 거울을 세워 쓰도록 되어 있는 소형 가구이다. 제주도의 경대는 육지부와 큰 차이는 없다.

(10) 뒤주

곡식을 넣어두는 가구로서 괴목으로 만든 것이 상품이며 장식은 무쇠나 놋쇠를 쓰고 보통 찬마루나 대청에 놓는다. 뒤주는 곡식을 담아두는 가구이므로 튼튼하게 제작되며, 네 기둥에 홈을 파서 두꺼운 널을 짜맞추는데, 안에 든 곡식을 지탱할 수 있게 어느 정도 규격화 되어 있다. 제주도형의 경우 뒤주의 모양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구석장'은 육지부 뒤주와 비슷한 모양으로 구석에 놓아 다목적으로 사용하며 '발뒤주'의 경우 곡식만을 보관하는 것으로 '장래' 모양에 발이 달린 변형된 형태이며 '반다지' 모양에 발을 붙인 형태도 있다. 그리고 '통뒤주'라 하여 통나무 속을 파내어 만든 뒤주도 있다.

(11) 소반

소반은 음식을 먹기 위한 한국 전래의 평좌식 식탁의 총칭으로 우리나라 민예가구 중 가장 우수한 것에 속한다. 생활관습에 따라 다양한 모양의 소반이 생겼는데 소박한 부조(浮彫)와 투조(透彫)는 우리 민족의 서민적인 생활미를 잘 표현한다. 제주도의 소반은 육지부와 큰 차이는 없다.

(12) 기타

- ① 고비 - 벽에 붙여 편지 따위를 넣어두는 종이 주머니이며 나무로 제작된 것도

있다.

② 붓걸이 - 문갑이나 머리장의 윗부분에 위치하는 것으로 고비와 함께 벽면을 장식하는 기구이다.

③ 필통 - 목재, 도제, 죽제, 석제 등을 이용하여 내부를 파내어 통을 구성하고 붓 등을 꽂아두는 것이다.

④ 지통 - 색간지나 두루마리를 꽂아 놓아 장식하는 문방용구이다.

⑤ 등잔 - 식물유를 넣은 접시나 석유 등잔을 올려 놓아 불을 밝힌 조명기구로, 제주도형의 경우 제주도 특산물인 진북 껍질을 이용하거나, 현무암을 이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⑥ 초롱 - 초를 꽂을 수 있는 바닥에 원통형, 또는 육면체의 벽을 만들어 불을 밝히는 조명기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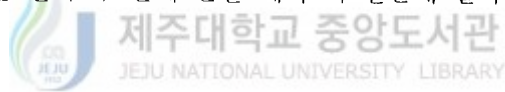
⑦ 목침 - 주로 여름에 사용하는 나무 베개. 제주도형은 육지부와 큰 차이는 없다.

⑧ 병풍 - 실내공간의 장식품으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 꾸민 장방형의 나무틀에 그림이나 글씨를 붙이는 것으로 흔히 2쪽에서 12쪽까지 짝수로 꾸민다. 현재는 12쪽이 성행하며 대·중·소의 3종이 있다.

⑨ 발 - 가늘게 쪼갠 대오리나 갈대 같은 것을 엮어 무엇을 가리는데 사용한다.

⑩ 돛자리 - 왕골이나 골풀의 줄기를 잘게 쪼개서 친 자리이다.

⑪ 헛대 - 대를 잘라 두 끝에 끈을 매어 벽 같은데 달아매어 옷을 걸게 한 막대이다.



3. 현대가구

현대가구의 범위는 19세기 중반 전 유럽을 통해 ‘예술과 공예를 새로이 하자는 운동 (Art and Craft)’으로부터 올라가며, 가깝게는 세계대전과 결부시켜 보고 있다. 특히 영국에서는 1942년 “실용가구계획안(Utility Furniture Scheme)”을 발표하였는데 이 실용가구계획안에 따라 가구 디자인의 표준화가 정립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현대가구를 1960년대 들어 수입원목을 주재료로 대량생산체제로 만들어진 가구를 그 시작으로 보았다.

현대가구의 특성을 보면 세계대전의 결과 실용주의에 바탕을 두어 공예·미술의 운

동과 대량생산에 사용된 기술과 재료를 절충한 양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러한 실용가구는 청교도적인 단순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전쟁으로 인해 여성복 디자인이 단순해지고 활동성을 강조한 경우와 일맥상통하다. 그런데 가장 큰 특징은 일정한 형식이 없다는 것과 가구 배치의 자유성이다. 반드시 벽에 붙여 놓는다거나, 정면만을 향하게 하지 않는 것으로 가구를 방의 중심에 비스듬히 배치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개가 모여 하나의 가구를 이루는 모듈가구의 존재도 현대가구의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일본 식민지통치로부터의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급속도로 서구문물이 도입되었다. 그 결과 주택구조의 변화, 생활패턴이 서구화되었고 국민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가구분야에도 급격한 변화가 계속 일어났다. 현재 한국의 가구 스타일은 매우 다양하여 전통적인 조선가구 스타일, 한국적 모던가구 스타일, 이태리 스타일, 프랑스 스타일, 스페인 스타일, 미국 스타일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그 재료로는 천연재와 인공소재가 공용되고 있다.

현대가구를 분류해 보면 건축용어대사전에서는 가구의 용도에 따라 안락용가구, 작업용가구, 수장가구로 나누었고, 문화에 따라 한식가구와 양식가구로 나누었다. 대상에 따라서는 대물가구(對物家具)와 대인가구(對人家具)로 나누었다. <표 2>는 현대가구를 분류한 것을 학자별로 정리한 것이다. 조성기·김일진은 인체계가구, 준인체계가구로 나눈 것이 특징이며, 박병완은 갑판류 가구를 포함시켰으며, 이연숙과 윤복자·지순, 오인옥은 용도별로 가구를 분류하였다. 신경주와 이경희·윤정숙·홍형옥은 움직이는가의 여부에 따라 가구를 분류하였다.



<표 2> 현대가구 분류

학자	가구의 분류	가구의 종류	자료원
조성기 김일진 (1983)	기능	휴식용가구 안락의자, 침대 작업용가구 작업용의자, 식탁자, 책상, 화장대, 조리대 수납용가구 양복장, 정리장, 식기장, TV, 가구	주거학 (동명사)
	인체계가구	의자, 작업용의자, 식사용, 독서용의자, 휴식용의자, 소파, 침대	
	순인체계가구	테이블(다이닝테이블, 엔드테이블, 코오퍼테이블, 데스크)	
	수납용가구	선반형가구, 상자형가구, 서랍형가구	
	대인가구	지직용가구(휴식용가구) 침대, 의자 작업용가구 탁자, 책상	
박병완 (1989)	기능	대용가구 (수납용가구) 상자형 선합형 선반형	주거학 (기동성)
	형태와 용도	의자류 침대류 탁자류 책상류 갑판류(조리대, 배선대 등) 선반류 기타(정리장, 의류장 등)	
	의자류	라운지 체어, 이지체어, 링체어, 풀업체어, 다이닝체어, 오토반, 푼모어쿠션	
	침대류		
	탁자와 책상	식탁, 좌탁자, 디용노, 소규모 탁자, 개인용 탁자, 무연용 탁자, 책상	
	수납가구	선반, 장, 리와 서랍장, 문백이 가구, 모듈가구	
	선반형		
이연수 (1990)	의자류	라운지 체어, 이지체어, 링체어, 풀업체어, 다이닝체어, 오토반, 푼모어쿠션	주거학 실내디자인 (경춘사)
	소파		
	침대류		
	탁자와 책상	식탁, 좌탁자, 디용노, 소규모 탁자, 개인용 탁자, 무연용 탁자, 책상	
신경주 (1991)	분막이가구		주거학 (수학사)
	가동가구		
	기능	대인가구 지직용가구 작업용가구 침대, 의자 탁자, 조리대, 책상	
	적인 추진	대용가구 (수납용가구) 선합형(숙육류의 정리) 캐비닛형 선반형	
윤복자 지 순 (1992)	문화	한식가구 양식가구 의자 침대	기초주거학 (신광출판사)
	용도	탁자 자탁자, 식탁, 책상 수납가구 옷장, 이불장서랍장, 식기장, 책장, 선반	
	분막이가구		
	가동가구		
윤장섭 (1994)	분막이가구		주거학 (교문사)
	가동가구	의자, 테이블(식탁, 커피테이블, 책상)	
	수납용가구	책장, 선합형	
김평탁 (1993)	용도	안락용가구 의자, 침대 등 작업용가구 테이블, 조리대, 세로판 등 수납가구 장롱, 찬장, 옷장 등	건축용어 대사전 (기동성)
	문화	한식가구 양식가구	
	대상	대인가구 대용가구	
	분막이가구		
	이동가구	의자, 테이블, 침대 : 비교적 움직이기 쉬운 가구	
이경희 외 (1994)	수납용가구	옷장, 이불장, 책상	주거학개론 (문운당)
	용도	가동가구(이동식 가구) 분막이가구(built-in-furniture), 고정가구	
	의자류	의자 소파 스톤, 라운지체어, 이지체어, 풀업체어, 섀터의자, 기타의자	
	테이블류	테이블 침대 식탁, 회의용 테이블, 책상, 보조용 테이블	
오인숙 (1994)	수납장	선반, 장지와 서랍장, 키오디, 장, 문백이 가구	실내디자인개론 (기동성)
	장막이가구		
	의자	의자	

Ⅲ.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모형

이 연구는 가구소유 실태를 파악하여 가구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그림 1>의 연구과정 흐름도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헌조사와 실물조사를 통하여 대표적인 가구의 목록과 조사문항을 만들었다.

두번째로 설문지를 작성하고, 예비조사로 검증된 설문지를 가지고 본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그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 분석하였다. 세번째로 가구에 대한 의식을 파악하고 전통가구와 현대가구의 소유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그림 1> 연구과정 흐름도

2. 조사내용 및 방법

이 연구의 조사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문헌조사, 실물조사, 질문지조사

먼저 문헌조사와 실물조사는 다음과 같이 수행되었다. 현대가구의 소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문헌고찰을 통해 22개의 현대가구목록을 작성하였다. 전통가구는 제주도 각 지역의 가구가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 조사를 통해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육지부의 전통가구를 중심으로 목록을 만든 후 현존하는 제주도 전통가구를 포함시켜, 대표적인 32개의 전통가구목록을 작성하였다. 실물조사가 이루어진 박물관의 소장가구는 다음과 같다.

- 제주도 민속 자연사 박물관(제주시 일도동 소재)
소장가구 목록 - 함, 서안, 사방탁자, 반다지, 약장, 빗집, 그릇장, 살레(찬장)
- 제주민속박물관(제주시 삼양동 소재)
소장가구 목록 - 함, 경대, 반다지, 단층장, 삼층장, 약장, 빗집, 그릇장, 살레(찬장)
- 제주대학교 박물관(제주시 아라동 소재, 제주대학교내)
소장가구 목록 - 경대, 반다지, 례, 돈례, 책장, 구석장, 빗집, 살레(찬장)

질문지 조사에서 가구 소유 실태에 대한 문항에서 현대가구는 명칭만 제시하였고, 전통가구는 명칭 제시만으로는 조사대상자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그림을 제시하여 쉽게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전통가구와 현대가구의 분류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앞의 <표 1>을 기준으로 하여 이 연구에서는 전통가구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 ① 수납용장류 장류 : 이층장, 삼층장, 머리장(단층장), 약장, 책장, 찬장
 농류 : 이층농
 기타 : 뒤주, 문갑, 반다지, 궤, 함, 경대

② 탁자류 - 탁자, 사방탁자, 찬탁

③ 상류 - 서안, 경상, 연상, 다과상, 소반

④ 기구류 - 고비, 붓걸이, 필통, 지통, 등잔, 초롱, 목침, 병풍, 발, 돛자리, 햇대

여기서 경대는 여성들이 단장에 필요한 도구 및 소모품들을 넣어두는 서랍이 있으므로 수납용장류에 포함시켰다.

앞의 <표 2>를 기준으로 하여 이 연구에서는 현대가구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 ① 의자류 - 의자, 소파
- ② 탁자류 - 탁자, 보조탁자, 식탁, 책상, 화장대, 콘솔
- ③ 수납용장류 - 옷장, 이불장, 장식장, 서랍장, 그릇장
- ④ 침대류 - 1인용 침대, 2인용 침대
- ⑤ 기타 - 배식차, 스탠드

현대가구 분류는 조사대상자가 이해하기 쉽게 실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구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의자는 등받이가 있는 것은 의자로, 등받이가 없는 것은 이동식 의자로, 그리고 소파는 1인용, 2인용, 3인용으로 나눠 조사하였다. 탁자류는 탁자, 보조탁자, 식탁, 책상, 화장대, 콘솔을 조사하였으며 수납용장류에서는 침실에 놓이는 옷장, 이불장, 서랍장, 거실에 놓이는 장식장, 부엌에 놓이는 그릇장으로 나누었다. 침대류는 1인용과 2인용으로 나뉘었으며, 기타에서는 배식차, 기구류인 스탠드를 포함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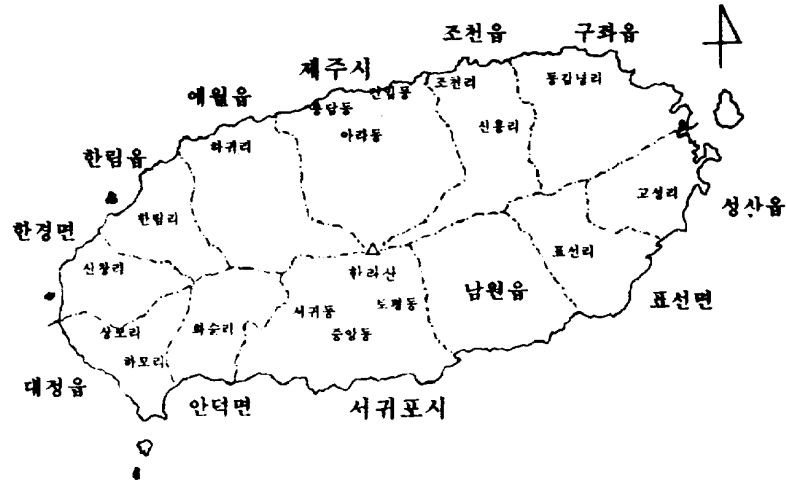
2) 조사지역의 선정

조사는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조사는 조사지역을 6개 지역에서 나누어 실시하여 행정구역상의 4개의 시·군을 제주시, 서귀포시의 경우 각각 1개 지역으로, 북제주군, 남제주군의 경우 동서의 지리적 거리를 감안하여 북군 동쪽, 북군 서쪽 2개 지역, 남군 동쪽, 남군 서쪽 2개 지역으로 설정하여 총 6개 지역으로 나누었다.

6개 지역에 질문지를 각각 360부씩(단, 남군 동쪽의 경우 240부) 배부하여 총 2,040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배부된 2,040 중 1,495부가 회수되었고, 1,200부를 조사자료로서 사용하였다.

지역분리와 조사지역의 위치는 <그림 2>와 같다. 제주시는 용담동, 건입동, 아래동, 서귀포시는 서귀동, 토평동, 중앙동, 북군은 하귀리, 한림리, 신창리, 조천리, 신흥리, 동김녕리, 남군은 상모리, 하모리, 화순리, 표선리, 고성리였다.



<그림 2> 지역분리와 조사지역의 위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 및 통계처리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를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가구에 대한 의식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χ^2 (Chi-square) 검증을 사용하였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자료와 현대가구·전통가구의 소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6개 지역중 뚜렷한 특징을 보이는 것에 대한 분석과 시지역과 시외지역의 비교분석을 중점적으로 제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와 주택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인 거주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표집은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였고 제주시, 서귀포시, 북군 동쪽, 북군 서쪽, 남군 동쪽, 남군 서쪽에 대한 표본수는 각각 200이며 전체의 16.7%(1/6)가 된다.

조사대상자를 연령의 분포로 보면 20대가 1.9%, 30대가 49.5%, 40대가 40.3%, 50대가 7.3%, 60대 이상은 1.3%로 30대와 40대가 전체의 89.8%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하가 18.8%, 중학교 졸업 26.3%, 고등학교 졸업 47.1%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대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은 전체의 7.8%로 매우 낮은 빈도를 나타냈다.

직업별 분포를 보면, 전업주부가 49.6%로 1/2정도가 되었으나 부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순수하게 주부이며 가사일만 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을 제외하면 70% 정도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1994년 15세 이상의 여성 인구를 기준으로 한 경제활동 참가율 66.2%에 비해 높은 비율이다.⁵⁾ 다음으로는 농업, 어업, 축산업, 임업, 공업 등의 생산직 종사자가 24.8% 높은 비율을 보였다. 판매직·서비스직·상업 종사자로서 15.7%, 전문직·기술직, 사무직·관리직은 각각 4.3%, 5.6%를 나타냈다. 그런데 표본설정에서 시지역(제주시 200자료, 서귀포시 200자료, 계 400)과 시외지역(북군동쪽 200자료, 북군서쪽 200자료, 남군동쪽 200자료, 남군서쪽 200자료, 계 800)의 자료 비율이 균등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산직 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거나, 상대적으로 타직업이 종사자가 낮게 나타나는 것은 배제하지 못하였다.

가족수는 5-6인 가족이 67.1%로 가장 많았고, 주택의 소유여부는 자가주택이 69.3%로 제주도 전체 주택보급율 54.5%⁶⁾와, 우리나라 전체 주택보급율 49.9%⁷⁾보다 높게 나타났다.

5) 통계청(1995), 「한국통계연감」 42호, p. 66.

6) 통계청(1992), 「199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제2권 시·도편-제주도, p. 83.

7) 통계청(1992), 「199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제1권 전국편, p. 456.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200

구분		f	%	구분		f	%
거주지	제주시	200	16.67	가족수	2인 이하	4	0.33
	서귀포시	200	16.67		3 ~ 4인	109	9.08
	북군 서쪽	200	16.67		5 ~ 6인	805	67.08
	북군 동쪽	200	16.67		7 ~ 8인	235	19.58
	남군 동쪽	200	16.67		9인 이상	47	3.92
	남군 서쪽	200	16.67				
연령	20대	19	1.58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225	18.75
	30대	594	49.50		중학교 졸업	316	26.33
	40대	483	40.25		고등학교 졸업	565	47.08
	50대	88	7.33		대학교 졸업	71	5.92
	60대 이상	16	1.33		대학원 졸업	23	1.92
월 소득	50만원 미만	42	3.50	주택의 소유 여부	자가	831	69.25
	5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400	33.33		전세	175	14.58
	150만원 이상 ~ 250만원 미만	565	47.08		월세	98	8.17
	250만원 이상 ~ 350만원 미만	142	11.83		사원주택, 관사	22	1.83
	350만원 이상	51	4.25		기타	74	6.17
직업	주부(무직)	595	49.58	근무시간	주부이면서 가사일만 하고 있다.	369	30.75
	생산직(농업, 어업, 축산업, 임업, 공업 등)	298	24.83		전일제(약 오전 9시~오후 6시)	269	22.42
	판매직, 서비스직, 상업	188	15.67		시간제(오전 또는 오후의 일 정시간만 일함)	78	6.50
	전문직, 기술직	51	4.25		부업을 하므로 일정한 시간 제한이 없다.	384	32.00
	사부직, 관리직	67	5.58		기타	100	8.33

주택의 일반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주택유형을 보면 조사대상자의 37.8%는 양옥 단독주택, 24.2%는 한옥단독주택으로 총 62.0%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즉, 제주도의 단독주택 거주율이 공동주택 거주율보다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에 의하면 87.3%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⁸⁾되었기 때문에 공동주택 보급율이 최근 5년 사이에 급격히 상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택의 구조는 조적조와 철골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전체의 92.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나무구조와 조립식 구조는 각각 3.7%, 1.9%로 보편화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실, 식당, 부엌을 제외한 방의 수는 56.0%가 3개이며, 2개인 경우, 4개인 경우가 22.0%, 19.1%였다. 방의 수는 3개가 가장 일반적이며, 2~4개 사이가 가장

8) 통계청(1992), 전계서, p. 83.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축 연면적은 20평이상-30평 미만이 가장 많고, 대지면적은 70평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준공이후의 연수는 7년 미만의 주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 주택의 일반적 특성

N=1200

구 분		f	%	구 분		f	%
대지 면적	30평 미만	175	14.58	건축 연면적	10평 미만	24	2.00
	30평 이상 ~ 50평 미만	106	15.58		10평 이상 ~ 20평 미만	361	30.08
	50평 이상 ~ 70평 미만	123	15.50		20평 이상 ~ 30평 미만	565	47.08
	70평 이상	230	33.42		30평 이상 ~ 40평 미만	173	14.42
	아파트나 연립주택등의 공동주택 이므로 개별적인 대지는 없다.	168	20.92		40평 이상	77	6.42
주택 유형	양육단독주택	454	37.83	주택 구조	나무구조	44	3.67
	한옥단독주택	290	24.17		조적조 (벽돌구조, 블록구조, 돌구조)	691	57.58
	다세대주택	161	13.42		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420	35.00
	아파트	161	13.42		조립식구조	23	1.92
	기타	134	11.17		기타	22	1.83
기밀, 단열, 부연율 새외면 방의 수	one room 시스템	6	0.50	준공 이후의 연수	만 3년 미만	167	13.92
	1개	29	2.42		만 3년 이상 ~ 7년 미만	364	30.33
	2개	264	22.00		만 7년 이상 ~ 11년 미만	212	17.67
	3개	672	56.00		만 11년 이상 ~ 15년 미만	134	11.17
	4개이상	229	19.08		만 15년 이상	323	26.92

2. 가구에 대한 의식



가구에 대한 의식을 일반적인 의식과 전통가구에 대한 의식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① 가구에 대한 일반적인 의식

가구에 대한 일반적인 의식은 다음의 <표 5>와 같다.

먼저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구의 적합성에 대한 의식이다. '아동방의 경우는 모난 가구를 피하고 색채도 신경을 써서 성장기 변화에 적합하도록 했다'의 문항은 $p < 0.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였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남군의 경우 '보통이다'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북군의 경우 '그렇지 않은 편이다'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지역과 남군의 경우 가구의 적합성에 대한 의식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노부모 방의 경우는 좌식생활에 편리하도록 꾸몄다'의 문항은 $p < 0.05$ 에서 유의한 차를 보였다. 각 지역 모두 '보통이다'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두번째로 많

은 응답 비율은 제주시와 남군 서쪽에서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나머지 지역은 '그
렇지 않은 편이다'의 응답률이 높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자녀의 방과 노부모의 방에서 가구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인식의
정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와 별거하는 경우가 제주도에서 많은 것도 그 이유
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수납공간의 중요성 인식정도는 $p < 0.001$ 에서 유의한 차를 보였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는 긍정의 응답비율이 높은 반면, 시외지역은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시외지역이 대지면적에서 넓은 비율을 보였고, 부속건물 등 수납공
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상대적으로 시지역에서는
수납공간이 충분치 못하므로 수납공간의 확보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
다.

중고가구에 대한 의식을 보면, 낡은 가구를 고치거나 칠을 새로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39.6%가 되었으나 친분이 있는 사람과 가구를 바꿔서 쓰는 경우는 9.2%밖에
되지 않아 중고가구의 사용율은 저조하여, 긍정적 의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에 대한 의식을 보면 '편리성'은 $p < 0.05$ 에서 유의한 차를 보였다. 그러나 각
지역 모두 '보통이다'의 응답 비율이 평균 41.5%로 가장 높았고, '조금 만족한다'의 비
율이 두번째로 높았다. 그런데 세번째로 높은 응답을 보인 항목은 북군 동쪽에서 '조금
불만이다', 나머지 지역은 '매우 만족한다'로 나타났다. 즉 북군 동쪽을 제외하면 만족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간의 결속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문항은 $p < 0.001$ 에서 유의한 차를 보였으나 모
두 '보통이다'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번째로 높게 응답한 항목에서 차를 보
이는데 제주시와 북군 서쪽의 경우는 '매우 만족한다'에서 그외 지역은 '조금 불만이다'
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만족한다의 비율은 제주시 45.5%, 서귀포시 30.5%, 북군 서
쪽 31.5%, 북군 동쪽 30.0%, 남군 동쪽 25.0%, 남군 서쪽 26.0%로 나타나 편리성에 대
한 만족도는 제주시의 경우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미적 감각(독창성, 예술성 등)'에 대한 문항에서는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가 있
으나 각 지역 모두 '보통이다'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 제주시와 서귀포
시는 '조금 만족한다'에 15.5%, 14.4%를 보인 반면, 시외지역은 7.0%, 8.0%, 5.0%,
6.0%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여, 시지역 거주자의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유지시키는 정도'에 있어서는 '보통이다'의 비율이 5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때 만족정도에 대한 의식은 '보통이다'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아 중간입장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5> 가구에 대한 일반적 의식

가구에 대한 의식	가 주 지	세주시	서귀포시	북문서쪽	북문동쪽	남문동쪽	남문서쪽	계	χ ²
		(N=200)	(N=200)	(N=200)	(N=200)	(N=200)	(N=200)	(N=1200)	
		f(%)	f(%)	f(%)	f(%)	f(%)	f(%)	f(%)	
다동방의 경우는 보낸 가구를 피하고 정처에 도 신경을 써서 생활기 변화에 적합하도록 했 다	매우 그렇다	15(7.5)	19(9.5)	15(7.5)	6(3.0)	15(7.5)	7(3.5)	77(6.42)	50.711** df=20
	조금 그렇다	29(14.5)	47(23.5)	29(14.5)	20(10.0)	20(10.0)	39(19.5)	192(16.00)	
	보통이다	90(45.0)	74(37.0)	59(29.5)	59(29.5)	89(44.5)	80(40.0)	470(39.17)	
노후보 방의 경우는 최적 생활에 편리하도록 꾸민다	매우 그렇다	29(14.5)	40(20.0)	46(23.0)	40(20.0)	45(22.5)	38(19.0)	238(19.83)	31.772' df=20
	조금 그렇다	33(16.5)	20(14.5)	34(17.0)	41(20.5)	36(18.0)	49(24.5)	222(18.50)	
	보통이다	109(54.5)	110(55.0)	86(43.0)	88(44.0)	85(42.5)	83(41.5)	561(46.75)	
수납장 등의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매우 그렇다	54(27.0)	84(42.0)	47(23.5)	67(33.5)	50(25.0)	45(22.5)	347(28.92)	62.722*** df=20
	조금 그렇다	72(36.0)	61(30.5)	68(34.0)	41(20.5)	46(23.0)	56(28.0)	344(28.67)	
	보통이다	55(27.5)	38(19.0)	57(28.5)	63(31.5)	67(33.5)	79(39.5)	359(29.92)	
남은 가구는 버리지 않고 고치거나 선물 생각 하여 계속 사용 한다	매우 그렇다	18(9.0)	21(10.5)	29(14.5)	23(11.5)	21(10.5)	27(13.5)	139(11.58)	17.644 df=20
	조금 그렇다	56(28.0)	60(30.0)	63(31.5)	48(24.0)	51(25.5)	58(29.0)	336(28.00)	
	보통이다	62(31.0)	68(34.0)	47(23.5)	61(30.5)	65(32.5)	63(31.5)	366(30.50)	
천장이 있는 사람 과는 가구를 바꿔 서 쓰기도 한다	매우 그렇다	4(2.0)	4(2.0)	5(2.5)	4(2.0)	6(3.0)	3(1.5)	26(2.17)	24.020 df=20
	조금 그렇다	14(7.0)	11(5.5)	13(6.5)	18(9.0)	12(6.0)	16(8.0)	84(7.00)	
	보통이다	38(19.0)	25(12.5)	21(10.5)	32(16.0)	26(13.0)	23(11.5)	165(13.75)	
관리성	매우 그렇다	34(17.0)	33(16.5)	31(15.5)	27(13.5)	31(15.5)	30(15.0)	186(15.50)	34.396' df=20
	조금 그렇다	63(31.5)	51(25.5)	36(18.0)	30(20.0)	32(16.0)	52(26.0)	274(22.83)	
	보통이다	68(34.0)	78(39.0)	91(45.5)	84(42.0)	91(45.5)	86(43.0)	484(41.50)	
사회적 지위와 체면 을 유지시키는 정도	매우 그렇다	13(6.5)	22(11.0)	9(4.5)	8(4.0)	15(7.5)	11(5.5)	68(5.67)	12.123 df=20
	조금 그렇다	40(20.0)	40(20.0)	29(14.5)	32(16.0)	33(16.5)	26(13.0)	200(16.67)	
	보통이다	109(54.5)	109(54.5)	122(61.5)	114(57.0)	111(55.5)	121(60.5)	686(57.17)	
가족간의 권위에 대 한 기여도	매우 그렇다	27(13.5)	14(7.0)	17(8.5)	22(11.0)	15(7.5)	7(3.5)	102(8.50)	57.517*** df=20
	조금 그렇다	64(32.0)	47(23.5)	46(23.0)	38(19.0)	35(17.5)	45(22.5)	275(22.92)	
	보통이다	81(40.5)	115(57.5)	119(59.5)	105(52.5)	121(60.5)	110(55.0)	645(53.75)	
의적 공간에 대한 만족도(동상장, 예술 상 등)	매우 그렇다	11(5.5)	7(3.5)	7(3.5)	10(5.0)	8(4.0)	7(3.5)	50(4.17)	35.490' df=20
	조금 그렇다	35(17.5)	29(14.5)	14(7.0)	16(8.0)	10(5.0)	12(6.0)	121(9.33)	
	보통이다	87(43.5)	73(36.5)	87(43.5)	95(47.5)	87(43.5)	90(45.0)	519(43.25)	
매우 못하다	45(22.5)	59(29.5)	51(25.5)	48(24.0)	51(25.5)	54(27.0)	308(25.67)		
매우 못하다	29(14.5)	32(16.0)	41(20.5)	31(15.5)	44(22.0)	37(18.5)	211(17.58)		

* P<0.05, ** P<0.01, *** P<0.001

② 전통가구에 대한 인식

전통가구에 대한 인식은 <표 6>과 같다.

먼저 전통가구에 대한 호감도이다. 전통가구에 대한 호감도에서 '보통이다'라는 중간적 입장의 응답자가 40.0%이며 평소 친밀감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3.6%로 인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가구는 옛스러운 멋이 있어 좋다'는 문항에서는 긍정의 응답비율이 57.1%로 전통가구의 고전미를 높이 평가하는 비율이 많았고, 부정의 응답비율은 11.7%였다.

전통가구에 대해서는 긍정적 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6> 전통가구에 대한 인식

가구에 대한 인식	기주지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북제주군	남제주군	남제주군	계	x ²
		(N=200) f(%)	(N=200) f(%)	(N=200) f(%)	(N=200) f(%)	(N=200) f(%)	(N=200) f(%)	(N=1200) f(%)	
전통가구에 대해서는 평소 친밀감을 갖고 있다.	매우 그렇다	34(17.00)	33(16.50)	35(17.50)	30(15.00)	20(10.00)	29(14.50)	181(15.08)	28.991 df=20
	조금 그렇다	60(30.00)	70(35.00)	53(26.50)	49(24.50)	48(24.00)	62(31.00)	342(28.50)	
	보통이다	75(37.50)	77(38.50)	75(37.50)	83(41.50)	96(48.00)	74(37.00)	480(40.00)	
	그렇지 않다	20(10.00)	18(9.00)	23(11.50)	28(14.00)	21(11.50)	25(12.50)	135(11.25)	
전통가구는 옛스러운 멋이 있어 좋다.	매우 그렇다	52(26.00)	49(24.50)	51(25.50)	33(16.50)	38(19.00)	38(19.00)	261(21.75)	27.449 df=20
	조금 그렇다	62(31.00)	75(32.50)	68(34.00)	79(39.50)	66(33.00)	74(37.00)	424(35.33)	
	보통이다	68(34.00)	52(26.00)	53(26.50)	67(33.50)	66(33.00)	69(34.50)	375(31.25)	
	그렇지 않다	9(4.50)	13(6.50)	13(6.50)	11(5.50)	17(8.50)	15(7.50)	82(6.83)	
집에 있는 전통가구의 명칭을 정확히 알고 있다.	매우 그렇다	24(12.00)	20(10.00)	24(12.00)	23(11.50)	25(12.50)	20(10.00)	136(11.33)	38.881** df=20
	조금 그렇다	49(24.50)	44(22.00)	44(22.00)	27(13.50)	40(20.00)	39(19.50)	243(20.25)	
	보통이다	71(35.50)	82(41.00)	58(29.00)	67(33.50)	58(29.00)	86(43.00)	422(35.17)	
	그렇지 않다	40(20.00)	35(17.50)	58(29.00)	61(30.50)	48(24.00)	44(22.00)	286(23.38)	
전통가구는 가문의 전통을 나타내준다.	매우 그렇다	42(21.00)	26(13.00)	55(27.50)	30(15.00)	40(20.00)	52(26.00)	245(20.42)	39.641** df=20
	조금 그렇다	64(32.00)	64(32.00)	58(29.00)	59(29.50)	50(25.00)	62(31.00)	357(29.75)	
	보통이다	61(30.50)	65(32.50)	56(28.00)	71(35.50)	70(34.00)	60(30.00)	383(31.92)	
	그렇지 않다	23(11.50)	37(18.50)	24(12.00)	22(11.00)	25(12.50)	15(7.50)	146(12.17)	
전통가구는 문화적 유산의 측면에서 그 가치가 높으므로 계속 보존해야 한다.	매우 그렇다	69(34.50)	34(17.00)	68(34.00)	46(23.00)	53(26.50)	47(23.50)	317(26.42)	64.336*** df=20
	조금 그렇다	65(32.50)	54(27.00)	52(26.00)	64(32.00)	43(21.50)	79(39.50)	357(29.75)	
	보통이다	43(21.50)	88(44.00)	51(25.50)	65(32.50)	68(34.00)	55(27.50)	370(30.83)	
	그렇지 않다	16(8.00)	12(6.00)	22(11.00)	14(7.00)	20(10.00)	14(7.00)	98(8.17)	
물려받은 전통가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현대식 감각에 맞게 개조 후 사용하기도 한다.	매우 그렇다	4(2.00)	8(4.00)	10(5.00)	9(4.50)	7(3.50)	2(1.00)	40(3.33)	37.915** df=20
	조금 그렇다	24(12.00)	21(10.50)	22(11.00)	33(16.50)	22(11.00)	34(17.00)	156(13.00)	
	보통이다	61(30.50)	69(34.50)	52(26.00)	52(26.00)	42(21.00)	49(24.50)	325(27.08)	
	그렇지 않다	51(25.50)	67(33.50)	59(29.50)	50(25.00)	58(29.00)	54(27.00)	344(28.67)	
전통가구가 높은 방은 일부러 편지를 바꾸거나 민속장관을 사용하는 등 실내장식에 신경 쓴다.	매우 그렇다	4(2.00)	4(2.00)	10(5.00)	6(3.00)	16(8.00)	2(1.00)	42(3.50)	52.850*** df=20
	조금 그렇다	32(16.00)	14(7.00)	19(9.50)	27(13.50)	25(12.50)	21(10.50)	138(11.50)	
	보통이다	57(28.50)	61(30.50)	48(24.00)	73(36.50)	49(24.50)	55(27.50)	343(28.58)	
	그렇지 않다	52(26.00)	81(40.50)	82(41.00)	52(26.00)	69(34.50)	71(35.50)	407(33.92)	
		55(27.50)	40(20.00)	41(20.50)	42(21.00)	41(20.50)	51(25.50)	270(22.50)	

* P<0.05. ** P<0.01. *** P<0.001

전통가구에 대한 인지정도의 문항에서 '집에 있는 전통가구의 명칭을 정확히 알고 있다'의 문항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였다. 그런데 각 지역 모두 '보통이다'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시지역은 '조금 그렇다'가 두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나, 시외 지역은 '그렇지 않은 편이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시지역에서 전통가구의 명칭을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전통가구 가치에 대한 의식이다. '전통가구는 가문의 전통을 잘 나타내준다'의 문항은 $p < 0.01$ 에서 유의한 차를 보였다. '매우 그렇다'와 '조금 그렇다'가 남군 동쪽의 경우 4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은 편이다'와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서귀포시에서 22.5%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제주시, 북군 서쪽, 남군 서쪽의 경우 '조금 그렇다'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나머지 지역은 '보통이다'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통가구는 문화적 유산의 측면에서 그 가치가 높으므로 계속 보존해야 한다'의 문항은 $p < 0.001$ 에서 유의한 차를 보였다. '매우 그렇다'와 '조금 그렇다'가 서귀포시의 경우 44.0%로 가장 낮았고, 제주시의 경우 67.0%로 20%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제주시와 북군 서쪽의 경우는 '매우 그렇다'의 항목에서 응답비율이 34.5%, 34.0%로 가장 높고 남군 서쪽은 '조금 그렇다'가 39.5%로 가장 높고, 나머지 지역은 '보통이다'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제주시와 북군 서쪽 지역의 경우 전통가구에 대한 문화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통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의식은 다음과 같다.

'물려 받은 전통가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현대적 감각에 맞게 개조 후 사용하기도 한다'는 문항은 $p < 0.01$ 에서 유의한 차를 보였다. 시지역의 경우 '보통이다'의 응답 비율이 30.5%, 34.5%로 가장 높고, 북군 지역은 '그렇지 않은 편이다'의 비율이 29.5%, 27.5%로 가장 높고 남군 지역은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의 응답 비율이 35.5%, 30.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시외지역, 특히 남군에서는 개조 후 사용하는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전통가구가 놓인 방은 일부러 한지를 바르거나 민속장판을 사용하는 등 실내장식에 신경을 쓴다'의 문항은 $p < 0.001$ 에서 유의한 차를 보였다.

남군 동쪽의 경우 '매우 그렇다'와 '조금 그렇다'가 20.5%로 전통가구에 맞춰 실내장

식을 한다는 비율이 높은 반면, 서귀포시의 경우는 9.0%로 그 비율이 낮았다. '보통이다'의 응답 비율에서는 북군 서쪽이 24.0%로 가장 낮았고, 북군 동쪽은 36.5%로 가장 높았으며,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가 북군 동쪽에서 47.0%로 가장 낮은 반면, 남군 서쪽의 경우 61.0%로 14.0%의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제주시와 북군 동쪽의 경우 '보통이다'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으나, 나머지 지역은 '그렇지 않은 편이다'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아, 전체적으로 전통가구에 어울리는 적극적인 실내장식을 하지 않거나 전통가구의 실내장식에 대해서는 더욱 무관심한 것으로 생각된다.

3. 가구 소유 실태

1) 전통가구 소유 실태

거주지를 중심으로 전통가구의 소유 실태를 보면 <표 7>과 같다.

제주시의 경우 10개의 가구(家具)가 타지역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장류에는 이층장, 머리장(단층장), 경대, 탁자류에 사방탁자, 상류에 서안, 연상, 다과상, 기구류에 필통, 등잔, 햇대 등으로 장류와 상류를 타지역에 비해 많이 소유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문갑과 반다지, 목침, 병풍, 발, 돛자리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것은 서귀포시가 산북지역에 비해 조금 더 온화한 기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름용 가구의 소유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⁹⁾ 북군 서쪽은 삼층장, 경상, 고비, 초롱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북군 동쪽은 수납용 장류 4개, 탁자류 1개, 상류 2개, 기구류 2개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여기서 찬장, 뒤주, 찬탁, 다과상, 소반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부엌용 가구의 발달을 의미하는 것이다. 남군 동쪽은 탁자에서만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남군 서쪽은 책장, 이층농, 퀘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현대가구에 비해 낮은 소유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머리장, 책장, 이층농, 퀘, 경대, 사방탁자, 서안, 경상, 연상, 다과상, 고비, 붓걸이, 필통, 등잔, 초롱, 목침, 햇대는 20%이하의 아주 낮은 비율을 보였다. 예외적으로 뒤주는 68.3%, 반다지는 77.1%, 찬탁, 53.3%, 소반 69.5%의 높은 비율을 보임으로써 제주

9) 통계청(1995), 전계서, p. 13.

지역에서 널리 퍼져있는 가구로 볼 수 있다.

지역 구분을 시지역과 시외지역으로 나눠 평균 비율을 비교해 보면 머리장, 문갑, 경대, 사방탁자, 서안, 연상, 등잔은 시지역의 소유율이 높고, 삼층장, 약장, 찬장, 책장, 이층농, 뒤주, 궤, 함, 탁자, 찬탁, 경상, 소반, 지통, 초롱은 시외지역이 더욱 높은 비율을 보였다.

찬장은 제주시 25.5%, 서귀포시 18.0%를 보인 반면, 북서, 북동, 남동, 남서지역에서 각각 50.5%, 47.0%, 46.5%, 45.0%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시외지역의 경우도 싱크대 설비 등으로 현대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전통가구인 찬장도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함과 지통의 경우도 시외지역에서 현저한 차로 높게 나타났다. 햇대, 고비는 전체평균 6.1%의 아주 낮은 비율을 보였다. 소반은 시외지역이 근소한 차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데, 농어촌 지역의 경우 식탁보다는 아직도 소반을 많이 이용하는 것에 기인한 것 같다. 지통은 시외지역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나 현재까지 종이를 담아두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¹⁰⁾ 등잔의 경우 각 지역에서 비슷한 비율로 남아 있으나 전기의 보급율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장식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종류별 소유현황을 보면 제주시는 기구류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북군 서쪽은 탁자류와 상류, 북군 동쪽은 수납용 장류, 남군 동쪽은 상류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지역간에 큰 차이는 없고 최고 제주시 20.8%, 최하 서귀포시 18.7%를 보임으로써 그차는 2%내외였다.

이것을 시지역과 시외지역으로 나누어 본다면 시지역은 평균 19.8%, 시외지역은 평균 19.7%였다. 즉 시내, 시외간에 큰 차이는 없었다.

10) 용도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두고 이후 전통가구의 용도에 관한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표 7>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 전통가구 소유 실태

가구명	거주지		세주시 (N=200)		서귀포시 (N=200)		시지역		북군서쪽 (N=200)		북군남쪽 (N=200)		남군남쪽 (N=200)		남군서쪽 (N=200)		시외 지역		계 (N=1200)	
	f	%	f	%	f	%	f	%	f	%	f	%	f	%	f	%	f	%	f	%
	이층장	43	21.50	11	5.50	13.50	27	13.50	42	21.00	35	17.50	33	16.50	17.13	191	15.92			
삼층장	16	8.00	5	2.50	5.250	74	37.00	71	35.50	71	35.50	67	33.50	35.34	304	25.33				
머리장	47	23.50	35	17.50	20.50	3	1.50	0	0.00	2	1.00	1	0.50	0.75	88	7.33				
약장	11	5.50	1	0.50	3.00	27	13.50	42	21.00	35	17.50	33	16.50	17.13	149	12.42				
찬장	51	25.50	36	18.00	21.75	101	50.50	94	47.00	93	46.50	90	45.00	47.25	465	38.75				
책장	18	9.00	4	2.00	5.50	25	12.50	31	15.50	29	14.50	34	17.00	14.88	141	11.75				
이층농	13	6.50	2	1.00	3.75	22	11.00	31	15.50	27	13.50	33	16.50	15.17	128	10.67				
뒤주	89	44.50	110	55.00	49.75	155	77.50	158	79.00	155	77.50	153	76.50	77.63	820	68.33				
문갑	72	36.00	74	37.00	36.50	24	12.00	31	15.50	29	14.50	34	17.00	14.75	264	22.00				
반다지	145	72.50	158	79.00	75.75	155	77.50	158	79.00	156	78.00	153	76.50	77.75	925	77.08				
래	15	7.50	0	0.00	3.75	24	12.00	31	15.50	29	14.50	34	17.00	14.75	133	11.08				
합	19	9.50	1	0.50	5.00	85	42.50	93	46.50	90	45.00	83	41.50	43.88	371	30.92				
경대	49	24.50	44	22.00	23.25	21	10.50	11	5.50	17	8.50	14	7.00	7.88	156	13.00				
평균비율		22.62		18.50	20.56		28.58		30.50		29.54		29.31	29.56		26.51				
탁자	10	0.83	0	0.00	0.42	77	6.42	75	6.25	82	6.83	78	6.50	6.50	322	26.83				
사방탁자	43	21.50	41	20.50	21.00	22	11.00	11	5.50	20	10.00	15	7.50	8.50	152	12.67				
찬탁	17	1.42	4	0.33	0.88	153	12.75	158	13.17	155	12.92	153	12.75	12.90	640	53.33				
평균비율		7.92		6.94	7.43		10.06		8.31		9.92		8.92	9.30		30.94				
서안	45	22.50	41	20.50	21.50	6	3.00	11	5.50	10	5.00	1	0.50	3.50	114	9.50				
경상	10	5.00	1	0.50	2.75	31	15.50	29	14.50	26	13.00	19	9.50	13.13	116	9.67				
연상	49	24.50	43	21.50	23.00	22	11.00	10	5.00	19	9.50	15	7.50	8.25	158	13.17				
다과상	11	5.50	0	0.00	2.75	5	2.50	11	5.50	8	4.00	0	0.00	3.00	35	2.92				
소반	101	50.50	113	56.50	53.5	154	77.00	158	79.00	155	77.50	153	76.50	77.5	834	69.50				
평균비율		21.60		19.80	20.70		21.80		21.90		21.80		18.80	21.08		20.95				
고비	8	4.00	0	0.00	2.00	21	10.50	10	5.00	19	9.50	15	7.50	8.13	73	6.08				
붓걸이	8	4.00	1	0.50	2.25	6	3.00	11	5.50	8	4.00	0	0.00	3.13	34	2.83				
필통	37	18.50	11	5.50	12.00	21	10.50	11	5.50	19	9.50	15	7.50	8.25	114	9.50				
지통	10	5.00	0	0.00	2.50	61	30.50	75	37.50	72	36.00	64	32.00	34.00	282	23.50				
등잔	41	20.50	10	5.00	12.75	22	11.00	11	5.50	19	9.50	15	7.50	8.38	118	9.83				
초롱	5	2.50	0	0.00	1.25	63	31.50	57	28.50	60	30.00	50	25.00	28.8	235	19.58				
목침	31	15.50	36	18.00	16.75	2	1.00	1	0.50	3	1.50	1	0.50	0.88	74	6.17				
병풍	108	54.00	149	74.50	64.25	3	1.50	1	0.50	3	1.50	4	2.00	1.38	268	22.33				
발	84	42.00	111	55.50	48.75	39	19.50	35	17.50	38	19.00	37	18.50	18.63	344	28.67				
돛자리	144	72.00	158	79.00	75.50	2	1.00	1	0.50	0	0.00	3	1.50	0.75	308	25.67				
햇대	6	3.00	0	0.00	1.50	2	1.00	0	0.00	1	0.50	3	1.50	0.75	12	1.00				
평균비율		21.91		21.64	21.77		11.00		9.68		11.00		9.41	10.28		14.11				
평균비율		18.51		16.72	17.62		17.88		17.58		18.07		18.91	17.56		21.79				

전통가구를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택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의 가구 선정은 집단간 유의차가 인정되는 가구(家具)를 중심으로 하였다.

<표 8> 주택유형을 기준으로 한 전통가구 소유 실태 (%)

주택유형		양옥 단독주택 (N=454)	한옥 단독주택 (N=290)	다세대주택 (N=161)	아파트 (N=161)	기타 (N=161)	계 (N=1200)
수납용 장류	이층장	15.64	18.97	11.80	16.15	14.93	15.92
	찬장	45.81	43.79	31.68	22.98	31.34	38.75
	이층농	11.23	14.83	7.45	4.97	10.45	10.67
	뒤주	72.91	69.66	64.60	55.28	70.15	68.33
	반닫이	79.96	73.45	78.26	76.40	74.63	77.08
	궈	10.79	15.86	8.07	6.83	10.45	11.08
	평균비율	27.36	29.20	24.32	21.93	25.95	26.51
탁자류	찬탁	59.91	62.07	44.72	24.84	56.72	53.33
	평균비율	31.86	34.83	27.95	20.08	36.07	30.94
상류	연상	10.35	12.07	13.66	21.74	14.18	13.17
	소반	73.79	70.00	70.19	58.39	66.42	69.50
	평균비율	20.84	21.31	20.37	21.37	20.75	20.95
기구류	병풍	18.28	11.38	29.81	48.45	19.40	22.33
	발	30.62	24.14	26.09	37.89	23.88	28.67
	돛자리	21.81	12.76	34.16	56.52	19.40	25.67
	평균비율	13.38	12.35	14.17	19.26	14.11	14.11
전체 평균 비율		21.96	22.70	20.55	20.75	22.02	21.79

주택유형을 기준으로 한 전통가구의 소유실태는 <표 8>과 같다. 수납용 장류는 한옥 단독주택에서 소유율이 높으며 아파트에서는 가장 낮은 소유율을 보였다. 반면 상류와 기구류의 경우 아파트에서 소유율이 가장 높으나 한옥 주택에서 가장 낮다. 수납용 장류 중 삼층장은 한옥주택에서 36.2%의 빈도를 갖은 반면 아파트에서는 12.4%로 가장 낮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옥단독주택은 이층장, 삼층장, 약장, 책장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장류의 전체 평균 비율이 아주 낮기 때문에 주택유형간의 차도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단, 찬장의 경우, 양옥·한옥 단독주택에서 각각 45.8%, 43.8%의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인 주방가구였으며 다세대 주택, 아파트는 31.7%, 23.0%로 그보다는 낮은 비율을 보였다.

양옥 단독주택은 찬장, 뒤주, 반닫이, 소반, 헛대 5개 가구에서 다른 주택유형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고, 한옥단독주택은 이층장, 삼층장, 약장, 책장, 이층농, 궈, 찬탁, 경상, 초롱 10개 가구, 아파트는 연상, 필통, 등간, 목침, 병풍, 발, 돛자리 등 기구류를 중심으로 머리장, 문갑, 경대, 사방탁자, 11개 가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가구는 서안이다.

<표 9> 주택구조를 기준으로 한 전통가구 소유 실태 (%)

주택구조		나무구조 (N=44)	조적조 (N=691)	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N=420)	조립식구조 (N=23)	기타 (N=22)	계 (N=1200)
수납용 장류	머리장	11.36	5.79	10.24	0.00	0.00	7.33
	이층농	13.64	10.71	9.52	17.39	18.18	10.67
	뒤주	61.36	71.64	63.10	78.26	68.18	68.33
	문갑	34.09	19.10	25.95	17.39	18.18	22.00
	반다지	70.45	77.57	77.14	82.61	68.18	77.08
	평균비율	28.02	26.44	24.43	30.47	24.15	26.51
탁자류	찬탁	45.45	60.64	40.24	78.26	63.64	53.33
	평균비율	28.79	34.15	25.40	39.13	31.82	30.94
상류	다과상	6.82	3.04	2.62	0.00	0.00	2.92
	소반	68.18	72.94	63.57	78.26	68.18	69.50
	평균비율	22.27	21.27	20.52	20.87	16.37	20.95
기구류	병풍	29.55	15.48	34.76	0.00	9.09	22.33
	돛자리	29.55	18.23	39.76	4.35	4.55	25.67
	평균비율	16.94	13.33	15.93	4.74	7.85	14.11
전체 평균 비율		23.39	21.85	20.99	20.94	18.05	21.79

주택구조를 기준으로 한 전통가구의 소유 실태는 <표 9>와 같다. 전체적으로 나무구조의 주택의 경우 머리장, 약장, 책장, 문갑, 경대 등의 수납용 장류, 연상, 다과상 등의 상류, 고비, 붓걸이, 초롱, 목침, 발 등의 기구류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조적조주택의 경우 이층농, 찬장, 뒤주 등의 부엌용 가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에서는 서안, 필통, 등잔, 병풍, 돛자리 등 기구류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조립식구조에서는 삼층장, 책장, 반다지, 함 등의 수납장류와 탁자, 찬탁, 경상, 소반 등의 상류, 기타 주택구조에서는 책장, 이층농, 궤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평균 비율을 비교해 보면 근소한 차이지만 나무구조의 주택이 23.4%로 가장 높고, 기타 구조 주택이 18.1%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뒤주, 반다지, 찬탁, 소반 등의 식생활의 기본도구는 나무, 조적조, 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조립식 및 기타의 모든 양식에서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함, 탁자, 고비, 지통, 초롱 등의 전통 생활도구 등은 철골구조, 철근 콘크리트구조보다 조적조양식에서 많이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병풍, 발, 돛자리 등은 전통가구이지만 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에도 다수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거실, 식당, 부엌을 제외한 방의 수를 기준으로 한 전통가구 소유 실태 (%)

방의 수		1개 (N=35)	2개 (N=264)	3개 (N=672)	4개 이상 (N=229)	계 (N=1200)
수납용	머리장	2.86	6.06	6.10	13.10	7.33
	찬장	25.71	37.88	37.65	44.98	38.75
	뒤주	68.57	65.91	68.45	70.74	68.33
장류	문갑	20.00	21.21	21.43	24.89	22.00
	반다지	77.14	77.27	76.34	79.04	77.08
	평균비율	23.09	25.35	26.50	27.95	26.51
탁자류	탁자	25.71	23.48	28.12	27.07	26.83
	찬탁	48.57	50.76	53.87	55.46	53.33
	평균비율	26.66	28.91	31.74	31.59	30.94
상류	다과상	5.71	3.41	2.23	3.93	2.92
	소반	60.00	69.70	67.86	75.55	69.50
	평균비율	19.42	20.99	20.33	22.97	20.95
기구류	조롱	11.43	18.18	21.28	17.47	19.58
	햇대	0.00	1.14	1.04	0.87	1.00
	평균비율	13.24	14.08	14.20	13.97	14.11
전체 평균 비율		19.47	21.13	21.80	22.71	21.79

거실, 식당, 부엌을 제외한 방의 수를 기준으로 한 전통가구의 소유 실태는 <표 10>과 같다. 방을 하나 갖고 있는 주택은 전체수가 35이므로 뒤주, 반다지, 함 등의 수납장류, 탁자, 찬탁, 경상, 다과상 등의 상류, 붓걸이, 지통과 같은 기구류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나 빈도수는 상대적으로 적다. 방이 2개인 주택에서는 햇대, 3개인 주택은 고비와 조롱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4개 이상인 주택에서는 삼층장, 머리장, 찬장, 문갑, 소반, 목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평균 소유율을 비교해 보면 4개 이상의 방을 갖고 있는 주택이 22.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볼 때 방수가 많을수록 높은 소유율을 보였다.

<표 11> 연령을 기준으로 한 전통가구 소유 실태

(%)

연령		20대 (N=19)	30대 (N=594)	40대 (N=483)	50대 (N=88)	60대 이상 (N=16)	계 (N=1200)
수납용 장류	이층장	10.53	15.66	15.73	19.32	18.75	15.92
	머리장	0.00	5.72	10.14	4.55	6.25	7.33
	찬장	26.32	35.35	42.03	46.59	37.50	38.75
	책장	5.26	12.12	10.77	13.64	25.00	11.75
	뒤주	63.16	66.50	70.19	72.73	62.50	68.33
	문갑	10.53	22.90	21.53	19.32	31.25	22.00
	반다지	73.68	76.09	78.67	77.27	68.75	77.08
	궤	5.26	11.11	10.77	12.50	18.75	11.08
	경대	15.79	13.80	12.22	11.36	12.50	13.00
	평균비율	19.84	25.98	26.96	28.58	28.85	26.51
탁자류	탁자	21.05	27.10	27.12	23.86	31.25	26.83
	찬탁	47.37	51.18	54.24	62.50	62.50	53.33
	평균비율	28.07	30.25	31.61	32.20	33.33	30.94
상류	연상	15.79	13.30	13.25	11.36	12.50	13.17
	다과상	0.00	2.19	3.73	4.55	0.00	2.92
	소반	68.42	68.01	70.60	73.86	68.75	69.50
	평균비율	20.02	19.25	21.82	22.73	17.50	20.96
기구류	초롱	21.05	17.68	20.50	25.00	31.25	19.58
	평균비율	12.44	13.53	15.17	12.40	14.77	14.11
전체 평균 비율		18.09	21.05	22.54	22.44	22.66	21.79

연령을 기준으로 한 전통가구의 소유 실태는 <표 11>과 같다. 반다지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최저 68.8%~최고 73.7%로 매우 높은 소유율을 보였으나, 이층장, 약장, 책장, 궤, 탁자, 찬탁, 지통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소유율이 높아지며, 다른 가구에 대해서는 집단간 큰 차이없이 비슷한 수준의 소유율을 보였다. 평균 소유율을 보면 60대 이상의 경우 22.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20대의 경우 18.1%로 가장 낮은 소유율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연령이 높을수록 전통가구의 소유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젊은층의 세대보다 고령층의 세대가 전통가구를 많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구조에 따른 소유 실태에서도 나타났듯이 뒤주, 반다지, 소반 등의 경우는 연령에 관계없이 60%이상의 높은 소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반면 다과상, 소반, 붓걸이, 헛대는 연령에 관계없이 제주지역에서 별로 소유하지 않는 가구로 나타났다. 대부분 전통가구가 고령층의 소유율이 높는데 비하여 경대, 사방탁자, 서안, 연상 등의 가구는 오히려 젊은층에서 높은 소유율을 보이고 있어 이는 젊은층이 소규모의 가구를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 12> 학력을 기준으로 한 전통가구 소유 실태

(%)

학력		초등학교 졸업이하 (N=225)	중학교 졸업 (N=316)	고등학교졸업 (N=565)	대학교졸업 이상 (N=94)	계 (N=1200)
수납용	뒤주	70.22	74.37	65.66	59.57	68.33
	반다지	74.67	78.48	77.17	77.66	77.08
장류	경대	10.22	9.81	14.51	21.28	13.00
	평균비율	28.38	27.77	25.69	22.67	26.51
탁자류	사방탁자	11.11	10.13	13.81	18.09	12.67
	찬탁	63.11	62.34	48.67	27.66	53.33
	평균비율	34.81	35.76	28.56	19.86	30.94
상류	서안	7.56	6.65	10.27	19.15	9.50
	연상	11.11	10.13	14.16	22.34	13.17
	소반	71.56	71.52	67.26	1.28	69.50
	평균비율	20.80	20.13	21.12	8.98	20.95
기구류	병풍	11.11	14.25	27.08	47.87	22.33
	발	25.33	25.00	29.56	43.62	28.67
	돛자리	12.00	16.77	31.86	51.06	25.67
	평균비율	10.42	13.09	15.85	18.47	14.12
전체 평균 비율		21.63	22.28	21.86	18.82	21.79

학력을 기준으로 한 전통가구의 소유 실태는 <표 12>와 같다. 머리장의 경우 대졸 집단에서 22.5%로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고, 찬탁, 병풍, 발, 돛자리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소유율이 낮아졌으며, 서안과 연상은 대학교 졸업 이상 집단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각각 26.1%, 30.4%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력이 높고 낮음에 따라 일정한 소유율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전반적으로 뒤주, 반다지, 소반 등의 비율은 높게 나타났으며, 젊은층에서 높게 나타났던 경대, 사방탁자, 서안, 연상 등은 고학력 계층에서도 높은 소유율을 나타내 앞으로의 이용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13> 소득을 기준으로 한 전통가구 소유 실태

(%)

소득		50만원 미만 (N=42)	5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N=565)	15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N=175)	25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 (N=142)	350만원 이상 (N=51)	계 (N=1200)
수납용 장류	이층장	4.76	18.25	15.75	14.08	13.73	15.92
	머리장	2.38	2.50	8.50	14.79	15.69	7.33
	찬장	40.48	42.25	37.35	35.21	35.29	38.75
	이층농	4.76	11.50	11.50	7.04	9.80	10.67
	뒤주	78.57	72.25	66.02	64.79	64.71	68.33
	케	2.38	11.50	12.04	9.86	7.84	11.08
	경대	9.52	10.50	13.27	16.90	21.57	13.00
	평균비율	24.36	27.13	26.49	25.14	27.30	26.51
탁자류	찬탁	66.67	63.00	50.80	36.62	41.18	53.33
	평균비율	37.30	34.50	30.15	23.24	28.11	30.94
상류	소반	78.57	71.75	67.43	68.31	70.59	69.50
	평균비율	21.43	21.20	20.04	22.39	24.71	20.95
기구류	병풍	21.43	13.00	24.25	38.73	29.41	22.33
	발	28.57	25.50	28.32	40.14	25.49	28.67
	평균비율	13.42	12.82	14.11	17.73	14.62	14.11
전체 평균 비율		21.35	21.98	21.57	21.99	22.61	21.79

소득을 기준으로 한 전통가구의 소유 실태는 <표 13>과 같다. 월평균 소득 150만원 미만의 집단에서 낮은 소유율을 나타냈고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높은 소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장류 중 이층장, 찬장, 찬탁, 소반이 저소득층에서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머리장, 책장, 뒤주, 경대, 사방탁자 등은 350만원 이상의 소득층에서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50만원 이상의 집단에서 목침, 병풍, 발, 돛자리에서, 150만원 이상의 집단에서는 이층농, 케, 고비, 필통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 소득에 따른 소유율에서도 반다지, 찬탁, 소반, 뒤주의 가구들은 소득에 상관없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젊은층, 고학력에서 소유율이 높았던 경대, 사방탁자, 서안, 연상의 가구류는 고소득층에서 많이 소유하고 있다.

평균 소유율을 비교해보면, 50만원 미만에서 21.4%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350만원 이상의 경우 2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즉 그 차가 1.2%밖에 되지 않으므로 소득에 따라 소유율의 차이는 없다.

<표 14> 가족 수를 기준으로 한 전통가구 소유 실태 (%)

가족수		4인 이하 (N=113)	5-6인 (N=805)	7-8인 (N=235)	9인 이상 (N=47)	계 (N=1200)
수납용장류	삼층장	27.43	22.48	31.91	36.17	25.33
	약장	11.50	10.81	15.32	27.66	12.42
	찬장	38.94	35.90	45.96	51.06	38.75
	평균비율	26.00	25.54	28.87	32.41	26.51
탁자류	찬탁	49.56	51.43	59.57	63.83	53.33
	평균비율	28.91	30.22	33.33	31.20	30.94
상류	다과상	5.31	2.48	1.70	10.64	2.92
	평균비율	21.95	20.57	20.94	25.11	20.95
기구류	붓걸이	5.31	2.24	2.13	10.64	2.83
	돛자리	25.66	28.82	16.60	17.02	25.67
	평균비율	14.56	14.38	13.42	11.80	23.11
전체 평균 비율		21.71	21.37	22.74	24.07	24.89

가족수를 기준으로 한 전통가구의 소유 실태는 <표 14>와 같다. 9인 이상의 가족에서 2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5-6인 가족의 경우 21.4%로 가장 낮은 소유율을 보였다. 그러나 그 차는 3% 이하로 가족수에 따른 소유의 차이는 없다.

<표 15> 주택의 소유여부를 기준으로 한 전통가구 소유 실태 (%)

주택소유 여부		자가 (N=831)	전세 (N=175)	월세 (N=98)	사원주택,관사 (N=22)	기타 (N=74)	계 (N=1200)
수납용장류	삼층장	26.47	20.00	23.47	22.73	28.38	25.33
	찬장	39.83	39.43	33.67	36.36	32.43	38.75
	뒤주	68.95	68.00	63.27	81.82	64.86	68.33
	문갑	21.30	24.57	23.47	18.18	22.97	22.00
	반다지	76.77	78.86	76.53	86.36	74.32	77.08
	강대	13.48	12.00	14.29	4.55	10.81	13.00
평균비율		26.69	25.85	25.12	27.62	27.55	26.51
탁자류	평균비율	31.97	27.30	27.89	22.73	34.69	30.94
상류	소반	70.52	68.57	65.31	59.09	68.02	69.50
	평균비율	21.47	20.00	20.82	20.00	17.66	20.95
기구류	평균비율	14.15	13.72	15.68	16.12	11.92	14.11
전체 평균 비율		22.06	20.89	21.46	22.02	21.30	21.79

주택의 소유여부에 따른 전통가구의 소유 실태는 <표 15>와 같다.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집단의 전통가구 소유율이 가장 높으나 근소한 차이이므로 집단간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된다. 뒤주, 반다지, 소반 등의 가구는 자가이든 월세이든 60% 이상의 소유율을 나타내고 있고 자가 주택과 사원주택의 가구 소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성이 없는 가구들은 자가주택에서, 이동하기 쉬운 가구들은 사원주택, 월세, 전세 주택에서 소유하는 경향이다.

2) 현대가구 소유 실태

지역당 200개의 자료를 기준으로 현대가구 소유실태를 살펴보면 <표 16>과 같다.

제주시의 경우 장식장, 그릇장, 이불장, 의자, 스탠드가 다른 지역보다 가장 많은 소유율을 보였다. 제주시의 가구 소유율은 특정 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공간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서귀포시의 경우 12개 가구(家具)가 타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의자류에서는 안락의자, 이동식 의자가 가장 높은 소유율을 보였으며 소파류에서 1·2·3인용 소파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탁자류에서는 보조탁자, 화장대, 콘솔, 장류에서는 책장, 서랍장, 그리고 침대류와 기타 가구류에서는 1인용 침대, 배식차가 타지역에 비해 높은 소유율을 보였다.

북군 서쪽은 탁자, 식탁, 2인용 침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남군 동쪽은 책상, 남군 서쪽은 옷장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가구(家具)의 종류별로 정리해 보면 제주시는 장류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서귀포시는 의자류, 소파류, 탁자류, 기타 가구류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북군 서쪽에서 서귀포시와는 근소한 차로 침대류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가구에 대한 의식에서 시지역이 수납 공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하여 수납용장류의 소유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전체 소유율로 볼 때 80%이상을 소유하는 가구는 옷장, 이불장으로 수납용가구이며, 50% 이상의 소유율 보인 가구는 의자, 책상, 책장, 스탠드이며, 40%이상의 소유율을 보인 가구는 안락의자, 1인용 소파, 3인용 소파, 화장대, 그릇장, 2인용 침대였다. 즉, 조사대상자의 절반 수준은 이상의 가구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20% 이하의 소유율을 보인 가구는 콘솔, 배식차인데, 북군 서쪽에서 한건만 나타날 뿐 시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배식차는 시지역 평균 35.0%이며, 시외지역은 12%로, 역시 시지역 소유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외에도 이동식 의자, 2인용 소파, 침대, 보조탁자, 화장대, 책장, 장식장, 서랍장, 그릇장에서 시지역 소유율이 높았으며, 옷장, 2인용

침대는 시외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시지역과 시외지역의 소유율의 차가 없는 가구는 책상과 이불장이었다.

<표 16>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 현대가구 소유 실태

가구명	거주지		제주시 (N-200)			시외지역 (N-200)			북관서쪽 (N-200)		북관동쪽 (N-200)		남관동쪽 (N-200)		남관서쪽 (N-200)		시외 지역	계 (N-1200)	
	f	%	f	%	%	f	%	f	%	f	%	f	%	f	%	%	f	%	
의 자 류	의자	148	74.00	132	66.00	70.00	116	58.00	102	51.00	122	61.00	111	55.50	56.38	731	60.92		
	안락의자	100	50.00	130	65.00	57.50	85	42.50	73	36.50	86	43.00	83	41.50	40.87	557	46.42		
	이동식의자	74	37.00	100	50.00	43.50	30	15.00	28	14.00	26	13.00	28	14.00	14.00	286	23.82		
	평균비율		53.67		58	55.84		38.50		33.83		39.00		37.00	37.08		43.72		
소 파 류	1인용소파	99	49.50	110	55.00	52.25	84	42.00	70	35.00	85	42.50	84	42.00	40.38	532	44.33		
	2인용소파	102	51.00	128	64.00	57.50	59	29.50	63	31.50	51	25.50	50	25.00	27.87	453	37.75		
	3인용소파	99	49.50	110	55.00	52.25	90	45.00	69	34.50	85	42.50	82	41.00	40.75	535	44.58		
	평균비율		50		55.79	53.00		38.83		33.67		36.83		36.00	36.33		42.22		
탁 자 류	탁자	70	35.00	68	34.00	34.50	98	49.00	72	36.00	85	42.50	76	38.00	41.37	469	39.08		
	보조탁자	90	45.00	121	60.50	52.75	56	28.00	60	30.00	51	25.50	56	28.00	27.88	434	36.17		
	식탁	65	32.50	79	39.50	36.00	95	47.50	72	36.00	85	42.50	76	38.00	41.00	472	39.33		
	화장대	136	68.00	137	68.50	68.25	60	30.00	39	19.50	57	28.50	52	26.00	26.00	481	40.08		
	원술	59	29.50	72	36.00	30.93	1	0.50	0	0.00	0	0.00	0	0.00	0.13	132	11.00		
	책상	135	67.50	125	62.50	65.00	145	72.50	133	66.50	149	74.50	143	71.50	71.3	830	69.17		
	개상	177	88.50	179	89.50	89.00	118	59.00	102	51.00	122	61.00	111	55.50	56.63	809	67.42		
평균비율		51.77		55.79	53.78		40.93		34.14		39.21		36.71	37.75		43.18			
수 납 용 품 류	장식장	125	62.50	123	61.50	62.00	55	27.00	60	30.00	53	26.50	61	30.50	28.50	477	39.75		
	서랍장	168	84.00	177	88.50	86.25	117	58.50	98	49.00	111	55.50	112	56.00	54.75	783	65.25		
	그릇장	169	84.50	156	78.00	81.25	63	31.50	61	30.50	50	25.00	48	24.00	27.75	547	45.58		
	이불장	176	88.00	158	79.00	83.50	162	81.00	163	81.50	171	85.50	168	84.00	83.00	998	83.17		
	옷장	135	67.50	104	52.00	59.75	189	94.50	194	97.00	199	99.50	200	100.00	97.75	1021	85.08		
평균비율		77.30		71.80	74.55		58.50		57.60		58.40		58.90	58.35		63.77			
침 대 류	1인용침대	61	30.50	91	45.50	38.00	64	32.00	47	23.50	60	30.00	55	27.50	28.25	378	31.50		
	2인용침대	66	33.00	85	42.50	37.75	115	57.50	94	47.00	110	55.00	104	52.00	52.88	574	47.83		
	평균비율		31.75		44.00	37.88		44.75		35.25		42.50		39.75	40.56		39.67		
기 타	백식자	56	28.00	84	42.00	35.00	31	15.50	10	5.00	32	16.00	23	11.50	12.00	236	19.67		
	스탠드	138	69.00	130	65.00	67.00	115	57.50	95	47.50	107	53.50	100	50.00	52.13	705	57.08		
	평균비율		48.50		53.50	51.00		36.50		26.25		34.75		30.75	32.06		38.38		
전체 평균 비율		55.50		59.07	57.28		44.25		39.23		43.11		41.43	41.98		47.0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택의 일반적 특성을 기준으로 현대가구의 소유 실태는 집단간 유의차가 있는 가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표 17> 주택유형을 기준으로 한 현대가구의 소유 실태 (%)

주택유형		양옥 단독주택 (N=454)	한옥 단독주택 (N=290)	다세대주택 (N=161)	아파트 (N=161)	기타 (N=161)	계 (N=1200)
의자류	의자	62.78	54.83	61.49	69.57	56.7	60.92
	평균비율	44.42	36.44	46.58	55.9	39.05	43.72
소파류	1인용소파	40.97	41.38	42.86	65.84	38.06	44.33
	평균비율	41.78	35.29	42.24	61.49	35.57	42.22
탁자류	탁자	42.51	38.62	38.51	33.54	35.82	39.08
	식탁	41.19	39.66	36.65	37.89	37.31	39.33
	화장대	34.58	33.10	45.34	67.70	34.33	40.08
	평균비율	43.58	38.77	43.74	52.26	39.76	43.18
서랍용장류	서랍장	37.83	24.17	13.42	13.42	11.17	11.17
	이불장	85.46	81.03	83.23	80.75	82.84	83.17
	옷장	87.89	90.69	78.88	72.05	86.57	85.08
	평균비율	58.05	54.42	53.12	56.60	52.68	52.95
침대류	1인용침대	30.18	29.66	32.30	39.75	29.10	31.50
	2인용침대	54.19	42.76	49.69	40.99	43.28	47.83
	평균비율	42.185	36.21	41.00	40.37	36.19	39.67
기타	스탠드	61.23	43.10	62.73	70.19	50.75	57.08
	평균비율	40.31	28.10	45.03	49.69	32.47	38.38
전체 평균 비율		46.31	40.33	45.92	53.69	41.04	44.59

주택유형을 기준으로 한 현대가구의 소유 실태는 <표 17>과 같다. 아파트의 경우 평균 비율 53.7%로 가장 높은 소유율을 보였다. 특히 탁자, 식탁, 서랍장, 이불장, 2인용 침대의 소유율이 가장 높고, 한옥 단독주택은 옷장의 소유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파트는 16개 가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18> 주택구조를 기준으로 한 현대가구의 소유 실태 (%)

주택구조		나무구조 (N=44)	조적조 (N=691)	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N=420)	조립식구조 (N=23)	기타 (N=22)	계 (N=1200)
의자류	의자	61.36	59.33	64.05	39.13	72.73	60.92
	평균비율	38.84	40.47	50.32	31.89	42.42	43.72
소파류	평균비율	33.34	38.30	50.24	42.03	30.30	42.22
	책상	65.91	70.19	67.86	69.57	68.18	69.17
탁자류	책상	63.64	63.97	74.76	39.13	72.73	67.42
	평균비율	37.34	40.77	48.54	36.02	34.29	43.18
수납용장류	서랍장	63.64	59.04	76.43	56.52	59.09	65.25
	이불장	90.91	82.20	84.52	60.87	95.45	83.17
	옷장	93.18	88.42	77.86	91.30	95.45	85.08
	평균비율	68.64	61.50	67.48	56.52	61.82	63.77
침대류	평균비율	25.00	38.28	43.81	47.83	25.00	39.67
기타	스탠드	63.64	52.82	64.29	48.48	54.55	57.08
	평균비율	35.23	33.65	47.50	24.24	36.37	38.38
전체 평균 비율		42.80	44.23	52.79	40.94	40.45	45.68

주택구조를 기준으로 한 현대가구의 소유 실태는 <표 18>과 같다. 철골구조, 철근 콘크리트구조 주택에서 이불장과 옷장을 제외한 모든 가구가 가장 높은 소유율을 보였으며, 평균 소유율도 52.8%로 다른 구조의 주택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9> 거실, 식당, 부엌을 제외한 방의 수를 기준으로 한 현대가구 소유 실태 (%)

방의수		1개 (N=35)	2개 (N=264)	3개 (N=672)	4개 이상 (N=229)	계 (N=1200)
의자류	의자	60.00	59.47	61.46	61.14	60.92
	안락의자	37.14	37.50	47.32	55.46	46.42
	이동식의자	20.00	16.67	24.11	31.88	23.83
	평균비율	39.05	37.88	44.30	49.49	43.72
소파류	1인용소파	40.00	40.53	45.68	45.41	44.33
	2인용소파	25.71	38.64	36.90	41.05	37.75
	3인용소파	31.43	31.06	48.07	51.97	44.58
	평균비율	32.38	36.74	43.55	46.14	42.22
탁자류	평균비율	40.41	39.52	43.18	47.85	43.04
수납용장류	이불장	71.43	82.20	83.93	83.84	83.17
	옷장	77.14	84.09	86.90	82.10	85.08
	평균비율	59.43	63.41	64.23	63.49	63.77
침대류	평균비율	30.00	30.50	40.03	50.66	39.67
기타	평균비율	20.00	33.91	39.66	42.58	38.38
전체 평균 비율		40.65	43.02	47.56	51.17	47.00

거실, 식당, 부엌을 제외한 방의 수를 기준으로 한 현대가구의 소유 실태는 <표 19>와 같다. one-room system의 경우 표본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방의 수 1개와 포함시켰는데 의자, 안락의자, 이동식 의자, 1인용소파, 2인용소파, 3인용소파에서 방의 수가,

2개, 3개, 4개 이상인 주택보다 소유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불장, 옷장 등 비교적 크기가 큰 가구는 방의 수가 3~4개의 규모가 큰 주택에서 높은 소유율을 보였다.

<표 20> 연령을 기준으로 한 현대가구 소유 실태 (%)

연령		20대 (N=19)	30대 (N=594)	40대 (N=483)	50대 (N=88)	60대 이상 (N=16)	계 (N=1200)
의자류	의자	42.11	62.79	60.66	51.14	75.00	60.92
	안락의자	42.11	43.43	50.10	50.00	31.25	46.42
	평균비율	35.09	42.53	45.96	41.67	41.67	43.72
소파류	1인용소파	52.63	45.62	44.72	36.36	18.75	44.33
	3인용소파	36.84	44.61	47.62	31.82	31.25	44.58
	평균비율	45.61	41.86	43.96	37.12	27.08	42.22
탁자류	보조탁자	42.11	33.50	39.54	35.23	31.25	36.17
	책상	47.37	70.88	69.15	60.23	81.25	69.17
	평균비율	39.85	42.04	45.11	42.21	36.61	43.18
수납용장 류	서랍장	68.42	64.14	68.74	56.82	43.75	65.25
	그릇장	52.63	44.78	47.79	42.05	50.00	45.58
	옷장	73.68	87.04	83.44	82.95	87.50	85.08
	평균비율	66.31	64.31	64.30	59.09	56.25	63.77
침대류	1인용침대	26.32	28.96	34.78	34.09	18.75	31.50
	평균비율	31.58	36.20	43.79	44.89	25.00	39.67
기타	평균비율	31.58	37.38	41.10	35.23	18.75	38.38
전체 평균 비율		44.50	46.19	48.95	44.89	37.78	47.05

연령을 기준으로 한 현대가구의 소유 실태는 <표 20>과 같다. 20대의 경우 1인용 소파, 2인용소파, 보조탁자, 화장대, 장식장, 그릇장의 소유율이 가장 높았고, 40대는 안락의자, 이동식의자, 3인용소파, 서랍장, 1인용침대, 스탠드의 소유율이 가장 높았다. 50대는 탁자, 식탁, 콘솔, 이불장, 2인용 침대, 배식차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60대 이상의 경우는 의자, 책상, 책장, 옷장에서 가장 높은 소유율을 보였다. 50대, 60대는 가족생활주기로 볼 때 자녀결혼기와 노년기에 해당되어 경제적으로 점차 안정되어 가고 생활수준이 향상되기 때문에 가구의 보급율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21> 학력을 기준으로 한 현대 가구소유 실태 (%)

가구명 \ 학력	초등학교 졸업이하 (N=225)	중학교 졸업 (N=316)	고등학교 졸업 (N=565)	대학교 졸업이상 (N=94)	계 (N=1200)
의자류	36.00	41.03	45.78	58.86	43.72
소파류	33.18	38.82	43.83	65.60	42.22
탁자류	37.65	41.23	45.01	51.98	43.18
수납용장류	47.00	49.64	56.00	68.51	63.77
침대류	35.33	39.40	41.24	41.49	39.67
기타	30.89	35.44	40.45	53.73	38.38
평균 비율	38.12	42.09	46.69	57.74	47.05

학력을 기준으로 한 현대가구의 소유 실태는 <표 21>과 같다.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 소유율은 높게 나타났고, 학력이 낮을수록 가구 소유율은 낮게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 졸업이하 집단과 대학교 졸업이상의 집단은 평균 20%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표 22> 소득을 기준으로 한 현대가구 소유 실태 (%)

가구명 \ 소득	50만원 미만 (N=42)		5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N=565)		15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N=175)		25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 (N=142)		350만원 이상 (N=51)		계 (N=1200)
	의자	평균비율	의자	평균비율	의자	평균비율	의자	평균비율	의자	평균비율	
의자류	의자	57.14	56.25	60.00	73.34	76.47	60.92				
	평균비율	37.30	38.00	44.01	55.43	58.17	43.72				
소파류	3인용소파	26.19	39.75	42.30	61.27	76.47	44.58				
	평균비율	28.57	38.17	40.53	56.10	65.36	42.22				
탁자류	책상	66.67	67.25	67.61	77.46	80.39	69.17				
	평균비율	35.71	39.39	43.89	50.00	50.67	43.18				
수납용장류	서랍장	42.86	59.25	67.08	75.35	82.35	65.25				
	그릇장	42.86	40.75	47.61	53.53	41.18	45.58				
장류	옷장	83.33	90.00	83.01	80.99	82.35	85.08				
	평균비율	54.76	62.05	64.21	68.31	67.06	63.77				
침대류	평균비율	13.64	21.21	28.04	20.67	23.84	39.67				
	스탠드	42.86	51.25	56.11	72.54	82.35	57.08				
기타	평균비율	27.38	32.13	38.50	50.36	61.77	38.38				
	신체 평균 비율	36.52	41.87	46.14	53.10	55.99	46.91				

소득에 따른 현대가구 소유 실태는 <표 22>와 같다. 소득이 높을수록 가구 소유율이 점차적으로 높게 나타나 가구의 소유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350만원 이상의 집단은 의자(76.5%), 안락의자(74.5%), 1인용 소파(72.6%), 3인용소파(76.5%), 책상(80.4%), 서랍장(82.4%), 스탠드(82.4%) 등의 의자류와 장류를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50만원 미만의 집단은 그릇장(42.9%), 옷장(83.3%)을 소유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23> 가족수별 기준으로 한 현대가구 소유 실태

(%)

가족수		4인 이하 (N=113)	5-6인 (N=805)	7-8인 (N=235)	9인 이상 (N=47)	계 (N=1200)
의자류	의자	65.49	60.25	59.57	68.09	60.92
	평균비율	44.84	43.98	42.55	43.97	43.72
소파류	1인용소파	38.94	45.96	44.26	29.79	44.33
	평균비율	40.71	43.52	40.14	35.46	42.22
탁자류	탁자	33.63	38.01	42.55	53.19	39.08
	책상	73.35	67.83	70.21	76.60	69.17
	평균비율	44.74	43.23	43.29	44.38	43.18
수납용장류	서랍장	60.18	67.20	62.98	55.53	65.25
	그릇장	51.33	45.80	41.70	46.81	45.58
	이불장	84.96	83.35	81.70	82.98	83.17
	평균비율	63.01	64.69	61.88	59.192	63.77
침대류	평균비율	35.74	39.255	41.7	45.745	39.665
기타	평균비율	38.05	39.38	34.68	40.43	38.38
전체 평균 비율		46.93	47.55	46.06	46.24	47.05

가족수에 따른 현대가구의 소유 실태는 <표 23>과 같다.

가족수에 따라 소유율의 차이는 없으나 가장 낮은 소유율은 2인 이하 가족으로 44.3%를 나타냈고, 가장 높은 소유율은 5~6인 가족으로 46.6%를 나타냈다.

<표 24> 주택의 소유여부를 기준으로 한 현대가구 소유 실태

(%)

주택소유여부		자가 (N=831)	전세 (N=175)	월세 (N=98)	사원주택, 관사 (N=22)	기타 (N=74)	계 (N=1200)
의자류	의자	61.01	56.00	67.35	86.36	55.41	60.92
	평균비율	45.65	39.62	38.10	53.03	36.49	43.72
소파류	3인용소파	49.22	34.86	23.47	63.64	37.84	44.58
	평균비율	44.73	38.86	27.55	59.09	36.49	42.22
탁자류	평균비율	44.72	40.57	37.61	48.05	36.87	43.18
수납용장류	그릇장	44.04	47.43	53.06	59.09	44.59	45.58
	이불장	83.39	85.14	82.65	77.27	78.38	83.17
	옷장	85.44	82.29	86.73	86.36	85.14	85.08
	평균비율	64.14	64.80	62.24	67.27	58.12	63.77
침대류	2인용침대	52.95	36.00	31.63	63.64	35.14	52.08
	평균비율	43.81	32.00	25.00	40.64	31.09	41.79
기타	평균비율	40.92	33.14	32.65	47.73	27.03	38.36
전체 평균 비율		48.83	44.26	40.31	53.90	40.18	47.24

주택의 소유 여부에 따른 현대가구의 소유 실태는 <표 24>와 같다.

전체적으로 관사, 사원주택의 가구 소유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관사의 경우 가구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관사, 사원주택을 제외하면 자가주택의 가구 소유율이 전세, 월세, 주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주택 자체에 지출되는 비용이 전세, 월세주택보다 적게 소요되거나 전세, 월세주택의 경우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게 된 후 구입하려는 의도 때문에 낮은 소유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4. 현대가구와 전통가구의 소유율 비교

소유하고 있는 현대가구와 전통가구의 수를 비교해보면 <표 25>와 같다.

<표 25>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수

종류	5종이하		6~10종		11~15종		16~20종		20종이상	
	f	%	f	%	f	%	f	%	f	%
전통가구	927	77.25	232	19.33	36	3.00	5	0.42	0	0.00
현대가구	59	4.29	448	37.33	505	42.08	187	15.58	1	0.08

현대가구의 경우 6~10종이 37.3%, 11~15종이 42.1%으로 전체의 79.4%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주택은 6~15종의 현대가구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5종이하의 주택도 4.3%를 나타내 최소한의 가구만을 가지고 거주하는 주택도 있음을 알 수 있다. 21종 이상은 단 한 개의 빈도로써 약 0.1%를 보였다. 전통가구는 5종 이하의 주택이 77.3%로 대부분의 주택에서 현대가구에 비해 적은 수의 가구를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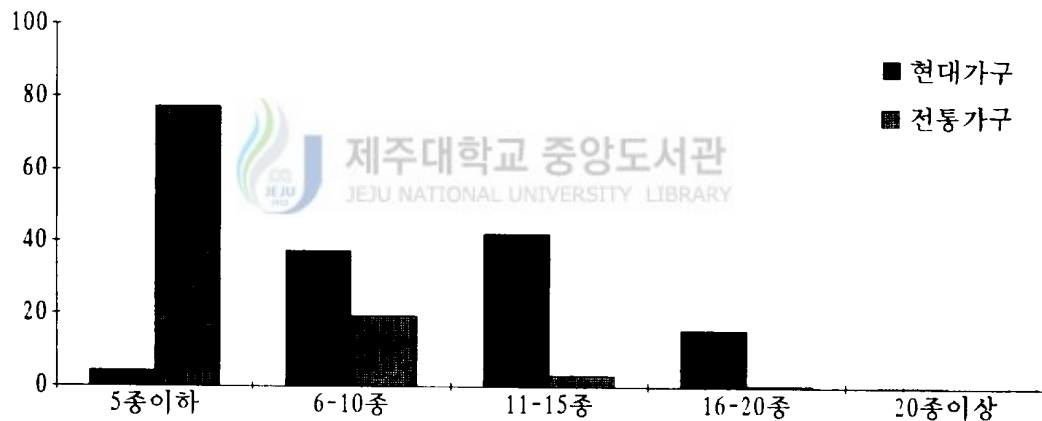
<표 26> 방에 따른 가구의 비율

(단위 : %)

가구의 종류 가구의 위치	고전	현대	절충식
거실	31.0	56.9	12.1
침실(안방)	42.8	35.7	21.5
평균	36.9	46.3	16.8

자료원 : 김행자(1985), "한국 전통적 특성을 활용한 아파트 실내계획",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환경대학원, p. 85.

김행자(1985)의 연구에서는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실과 안방에 있는 가구의 평균 비율이 전통가구 36.9%, 현대가구 46.3%, 절충식가구 16.8%로 현대가구의 소유율이 높게 나타났다.¹¹⁾ 여기서 절충식의 가구를 현대가구에 포함시킨다면 전통가구 36.9%, 현대가구(절충식가구 포함) 63.1%로 나타나 전체가구 중 전통가구의 비율은 1/3정도가 된다. 즉 이 연구의 소유 종수의 비교에 전통가구의 소유율이 약 1/3이하로 나타나는 것과 같은 결과이다. 김성희(1980)의 연구에서도 같다.¹²⁾ 현대가구와 전통가구의 소유율을 그래프로 비교해 보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전통가구와 현대가구의 소유율 비교

11) 김행자(1985), "한국 전통적 특성을 활용한 아파트 실내계획",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환경대학원, p. 85.

12) 김성희(1980), "이조가구를 활용한 현대주거 공간의 실내장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p. 37.

IV. 요약 및 결론

가구는 주택과 거주자간에 일상생활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즉 가구는 주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가구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에서는 가구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여 조사대상자·주택의 일반적 특성과 가구에 대한 의식을 조사, 분석하였고, 이들 요인에 따른 가구 소유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은 문헌고찰을 통해 22개의 현대가구의 목록을 작성하였고 전통가구는 제주도 각 지역의 가구가 집합되어 있는 박물관 조사를 통해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육지부의 전통가구를 중심으로 하여 현존하는 제주도 전통가구를 포함시켜 대표적인 32개의 목록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가구 소유 실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주택의 일반적 특성, 가구에 대한 의식을 조사할 수 있는 문항을 만들어, 제주도를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여섯개 지역으로 나누어 주부 1200명을 대상으로 가구 소유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1996년 2월~6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분석방법으로는 SAS통계처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택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으로, 가구에 대한 의식의 분석은 지역적 차이가 있는가를 χ^2 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가구의 소유도 빈도분석으로 실태를 파악하였다.

첫째, 가구에 대한 의식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녀와 노부모방의 연령에 맞는 가구 사용에 있어 비적극적이었다. 수납공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정도는 $p < 0.001$ 에서 유의한 차를 보였는데 시지역에서 긍정의 응답비율이 높았다. 중고가구에 대한 의식을 보면 낡은 가구를 고쳐서 계속 사용하거나 친분이 있는 사람과 교환해서 사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가구 사용 의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에 있어서는 '보통'이라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나 불만상태도 아니고 만족상태도 아닌 중간입장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전통가구에 대한 의식에서는 '전통가구가 친밀감을 준다'는 호감도가 높게 나타났고, 인지정도에 있어 $p < 0.01$ 수준에서 차를 보였는데 시지역에서 전통가구의 명칭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 전통가구에 대한 가치부여는 대체적으로 높았고 전통가구에 대한 적극적 활용의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통가구의 소유율은 평균 20% 정도의 비율을 보였다. 특히 뒤주, 반다지, 찬탁, 소반은 5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기구류는 제주시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고, 탁자류는 북군 서쪽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상(床)류는 북군 서쪽과 남군 동쪽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고, 수납용장류는 북군 동쪽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평균 소유율을 비교해 보면 지역간에 큰 차이는 없었으나, 머리장, 문갑, 병풍, 발, 돛자리는 시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현대가구 소유율은 평균 47% 정도로 전통가구보다 2배 이상의 소유율을 보였다. 그 중 수납용 장류인 옷장, 이불장의 경우 80% 이상의 높은 소유율을 보였고, 책상, 책장, 서랍장은 60% 이상의 소유율을 보였다. 장류는 제주시에서 가장 높은 소유율을 보였고, 의자류, 소파류, 탁자류, 기타 가구류는 서귀포시에서 가장 높은 소유율을 보였다. 그리고 침대류는 북군 서쪽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지역과 시외지역을 비교하였을 때는 20개 가구에서 시지역의 현대가구 소유율이 10% 이상 높게 나타났다.

셋째 소유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전통가구는 집단간에 소유율의 차이를 보이는 요인은 없었고, 현대가구는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 주택구조에서는 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방의 수가 4개 이상인 주택, 자가주택, 고학력, 고소득일수록 소유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몇가지 제언을 하면 현대가구에 비해 전통가구의 소유율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현대가구와의 조화의 범위를 모색하는 연구를 통하여 제주도 전통문화의 보호측면에서 제주도 가구에 대한 연구는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연구는 소유실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편리성, 의장성, 용적성 등 실용적인 조건에 따른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로 가구의 활용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들 연구가 이루어질 때, 가구는 인간과 건물 사이에서 매개체 역할을 하는 도구로써 일상생활에서 주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영환(1993), 「한국 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 김종학(1989), 「조선조목공예」, 국립중앙박물관.
- 대한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1993), 「가구조합30년사」.
- 박영규(1982), 「한국의 목가구」, 삼성출판사.
- 박병완(1989), 「주거학」, 기문당.
- 신경주(1991), 「주거학」, 수학사.
- 신경주 외 공역(1995), 「주택점검」, 학지사.
- 안옥희(1993), 「실내디자인」, 미진사.
- 안옥희·신경주(1995), 「주거관리학」, 학지사.
- 연세대생활과학연구소(1995), 「21세기 공동체 생활문화 육성을 위한 다학제적 접근 - 미래주택단지개발의 방향」.
- 오인욱(1992), 「실내디자인개론」, 기문당.
- 윤복자·지순·박영순(1988), 「Korean Furniture and Culture」, 신광출판사.
- 윤복자·지순(1992) 「기초주거학」, 신광출판사.
- 윤서석(1986), 「현대사회와 가정문화」, 수학사.
- _____ (1991), 「서양건축사」, 동명사.
- _____ (1991), 「한국건축사」, 동명사.
- _____ (1994), 「주거학」, 교문사.
- 윤정숙(1995), 「주거환경학」, 문운당.
- 이경희·윤정숙·홍형옥(1994), 「주거학개설」, 문운당.
- 이연숙(1991), 「주택과 실내디자인」, 경춘사.
- _____ (1988), 「현대가구의 역사」, 경춘사.
- 이연숙 외,(1995), 「미래주택과 공유공간」, 경춘사.
- 이영석 편(1989), 「주거환경계획」, 대우출판사.
- 이종식(1991), 「한국의 목공예」, 열화당.
- 인테리어 디자인 연구회 편(1992), 「세계의 현대가구와 조명」, 도서출판 국제.
- 장보웅(1992), 「한국의 민가연구」, 보진재.

- 제주도(1994), 「제주도민속자료」.
- _____ (1994), 「제주의 민속Ⅱ-생활기술, 공예기술」.
- 제주도건축사회(1992), 「제주건축」 제2집-제주도 주거건축의 향토성에 관한 연구, 정문사.
- 조성기·김일진(1983), 「주거학」, 동명사.
- 최정신·김대연(1996), 「인테리어디자인」, 문운당.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0), 「한국의 사회와 문화」-전통적생활양식의 연구.
- 김복수(1972), “실내장식의 원리적 분석과 그 응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김석륜(1986), “제주도 주택의 의장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 김미희(1996), “대도시 아파트 거주자의 가구사용 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7권 1호.
- 김성희(1993), “이조가구를 활용한 현대주거공간의 실내디자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김영주(1992), “아파트 거주자의 주거-아이덴티티 표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유순(1984), “한국의 전통적 미를 적용한 현대 거실가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 김행자(1985), “한국 전통적 특성을 활용한 아파트 실내계획”,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환경대학원
- 김혜은(1987), “현대 실내공간에서의 한국전통가구 활용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 김희재(1991), “주거환경변인과 주거만족도에 관한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 신영석(1990), “근대이후 한국 가구의 양식 변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신인호(1987), “한국 장유형에 현대인의 미의식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양 건(1991), “제주지역 현대 단독주택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유영희(1986), “조선시대 사랑방 가구에 대한 현대인의 미적 표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기욱(1993), “환경과 제주문화”, 탐라문화 13호, 탐라문화연구소.
- 이정근(1984), “소규모 주거공간의 효율극대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 이화실·박선희(1994), “아파트 거주자의 가구와 주거용품의 소득 및 공간 사용”, 한국주거학회지, 5(2).
- 최목화(1979), “현대생활에서 고가구의 용도분류와 고가구 관심도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하종한(1992), “거실내 가구사용 실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3(1).
- 기문당, 김평탁 편(1993), 「건축용어대사전」.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제1권-전국편(1990).
- _____,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제2권-시·도편(1990).
- _____, 한국통계연감 42호(1995).
- 금성출판사, 김민수 외 편(1993), 「국어대사전」.
- Amos Rapoport, 이규목 역(1995), *House Form and Culture*, 열화당.
- Edward Lucie-Smith, 조정숙·조정민 역(1992), *Furniture Design History*, 기문당.
- Louis Hellman, 임종엽 역(1995), *Architecture for Beginners*, 도서출판 국제.
- Martin Pawley, 최성민·이영철 역(1995), *Architecture VS. Housing*, 도서출판 성진사.
- Setha M. Low·Erve Chambers 편, 주거문화연구회 역(1994), *Housing, Culture and Design*, 신광출판사.
- Wendy W. Staebler, 주승범 역(1993), *Architectural Detailing in Residential Interiors*, 도서출판 국제.

< Abstract >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and Possession's Actual Conditions of Furniture
- In the Case of Cheju-do -

Lee, Jeong-Lim

Home Economic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Bong-Ae

Furniture plays a medium part to achieve a daily life smoothly between the house and the resident. In other words, because furniture is the important factor to raise the satisfaction of the housing life, and studying on furniture is needed now, in this research I investigated, analyzed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of investigation and the consciousness of furniture, intended to understand the conditions of possession of furniture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the basic data to suggest the using way of furniture.

In the way of this research I made lists of 22 modern furniture through considering documents, collecting basic data of traditional furniture through examining the museum which has furniture from the each region of Cheju-do, marking typical 32 lists including an existing traditional furniture of Cheju-do, centering on the traditional furniture in land. And I made a list to examin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of investigation which could influence the conditions of possession of furnitur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house, the consciousness of furniture. Dividing Cheju-do into 6 parts by a standard of on administration district, I investigated the conditions of possession of furniture applying to 1,200 housewives, and the period of investigation was from February to June in 1996.

I used Statistical Analysis System(SAS) as the way of analyzing. I analyzed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of this research and house through Frequency Analysis. I analyzed whether there is regional difference or not through χ^2 Analysis. And I understood the possession of furniture through Frequency Analysis.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February, 1997.

First, here is the result of analyzing that is about consciousness of furniture. While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of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securing the space for receiving on the level of $P < 0.001$, the affirmative rate was high in the city. For the consciousness of old furniture it was showed that they didn't use furniture positively as mending old furniture and exchange it with acquaintances. In the degree of satisfaction we could see that there were many middle positions which was not both satisfactory and discontent as the common answer was high.

In the consciousness of traditional furniture, there was high level of good impression that the traditional furniture gives the familiarity, and there was a difference as a level of $P < 0.01$ in the recognizing level, and the recognizing level of name of traditional furniture was high the city. While adding the value was generally high, the consciousness of positive use of traditional furniture was low.

Second, the actual conditions of possessing traditional furniture was in 20 percent in average, Especially a rice-chest ("Duiju"), a blanket chest ("Bandaji"), a side dish cupboard ("Chantak"), and a small dining table ("Soban") is as high over 50 percent. A tool was high in Cheju city and a table was high in the western of North-Gun. A desk was high in the western of North-Gun and the eastern of South-Gun, a cabinet for receiving was high in the eastern of North-Gun. When compared as an average rate of possessing,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each regions, but a head cabinet, a stationary case, a folding screen, a bamboo and a mat were high in the city.

The actual conditions of owning modern furniture was 47 percent in average, and the subjects of this research hold modern furniture twice as many as the traditional furniture. The rate of possessing receiving furniture including a clothes chest and a bedding chest was as high as over 80 percent, and that of a desk, a bookcase, and a drawer was over 60 percent. A cabinet was highest in Cheju city, a chair, a sofa, a table, and other furniture were highest in Seogui-Po city. And a bed was highest in the western of North-Gun. When compared as the city and the country, the rate of possessing modern furniture was as high as over 10 percent in the city.

Third, in the factor to influence the actual conditions of possessing, there was no factor which showed difference of rate of possessing among groups in traditional furniture, as for modern furniture, on apartment in a housing type, a steel structure and reinforced concrete in a housing structure, house, one's own house which has more than four rooms, a high scholarship, a high income showed the high rate of possessing.

부 록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제주도의 가구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그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작성되었습니다. 본 설문은 각 가정의 주부님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한 정답을 전제로 하지 않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전통가구 및 현대 가구의 소장여부와 사용실태에 대한 사실대로의 답변만이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문항마다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설문 결과는 연구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치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이정림

※ 다음 문항을 읽으시고, 해당 사항에 ○표 또는 √표하여 주십시오.

I. 인적 및 일반사항

1. 거주하고 있는 지역?

①제주시 ②서귀포시 ③북군 서쪽 ④북군 동쪽 ⑤남군 동쪽 ⑥남군 서쪽

2. 당신의 나이?(주부)

①20대 ②30대 ③40대 ④50대 ⑤60대 이상

3. 당신의 학력?(주부)

①초등학교 졸업 이하 ②중학교 졸업 ③고등학교 졸업
④대학교 졸업 ⑤대학원 졸업

4. 당신의 직업?(주부)

①주부(무직) ②생산직(농업, 어업, 축산업, 임업, 공업 등)
③판매직, 서비스직, 상업 ④전문직, 기술직 ⑤사무직, 관리직 ⑥기타

5. 가족수?

①2인 이하 ②3-4인 ③5-6인 ④7-8인 ⑤9인 이상

6. 가정의 월평균 수입?

①50만원 미만 ②5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③15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④25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 ⑤350만원 이상

7. 월평균 住생활비?

①50만원 미만 ②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③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④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⑤200만원 이상



15. 당신의 주택에는 거실, 식당, 부엌을 제외한 몇 개의 방이 있습니까?
 ①one-room 시스템이다 ②1개 ③2개 ④3개 ⑤4개 이상
16. 당신의 주택은 구조상 다음의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나무구조(木構造) ②조적조(造績造)-벽돌구조, 블록구조, 돌구조
 ③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④조립식구조 ⑤기타

Ⅲ. 현재의 주택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나 당신의 주택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난에 ○표 또는 √표하여 주십시오.

(타인이 건축하고 입주한 경우와 직접설계에 참여하고 건축한 후 입주한 경우 모두 포함)

문항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17. 이 집은 통학 및 통근이 용이하여 선택하였다.					
18. 병원, 시장, 도서관 등 여러 시설이 근처에 있어서 선택하였다.					
19. 이 주택은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선택하였다.					
20. 부모님이나, 형제, 친지의 집이 근처에 있어서 선택하였다.					
21. 정원이나, 텃밭이 있어서 선택하였다.					
22.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집에 살던 주인, 혹은 집을 지은 건설회사를 신뢰할 수 있어서 선택하였다.					
23. 전망이 좋아서 선택하였다.					
24. 소음이 적어서 선택하였다.					
25. 투자가치 때문에 선택하였다.					

IV. 당신이 집을 지을 때 특히 신경을 쓰게 될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난에 ○표 또는 √표하여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26. 좁은 주택은 답답하므로, 가능한 한도내에서 최대한으로 넓게 짓겠다.					
27. 친지 등 손님의 방문과 세를 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면적을 넓게 하기 보다는 지나치게 좁지 않은 범위에서 방수를 늘리는데 중점을 두겠다.					
28. 채광과 통풍에 중점을 두겠다.					
29. 수납공간의 확보에 중점을 두겠다.					
30. 집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사람은 주부이므로 주부의 동선을 고려한 방배치에 중점을 두겠다.(※동선 : 움직이는 이동 거리)					
31. 성장기 아동의 변화에 적합하고 안전성을 고려하는데 중점을 두겠다.					
32. 노인의 편의를 고려한 방배치에 중점을 두겠다.					
33. 사생활의 보호측면에서 안방의 위치가 중요하다.					
34. 거실, 부엌, 가족실 등 공동사용 공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35. 자신의 개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완공된 후에도 증축 또는 개축을 해야 한다.					
36. 증·개축시에는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V. 현재의 주택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다음 항목에서 해당되는 난에 ○표 또는 √표하여 주십시오.

문항	매우 만족한다	대체로 만족한다	보통이다	조금 불만이다	매우 불만이다
37. 안전성(물리적인 면)					
38. 안락성(정신적인 면)					
39. 편리성					
40. 경제성(주택의 가격 등)					

문항	매우 만족한다	대체로 만족한다	보통이다	조금 불만이다	매우 불만이다
41.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유지시키는 정도					
42. 가족간의 결속에 대한 기여도					
43. 미적 감각(독창성, 예술성 등)					
44. 사생활의 보호 정도					
45. 여가생활 활용면(오락·운동의 가능 정도)					
46. 손님의 초대, 대접 등의 사교적인 면					

VI. 당신의 주택의 실내장식에 대해 묻습니다. 해당하는 난에 ○표 또는
✓표하여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47. 평소 실내장식에 대한 관심도는 높은편이다.					
48. 증·개축의 방법 보다는 비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실내장식으로써 변화를 주고 있다.					
49. 벽, 바닥, 천정의 마감재(벽지, 모노롬 등)는 자주 혹은 정기적으로 바꾸는 편이다.					
50. 현재의 실내장식에 대해 만족한다.					
51. 실내장식에 대한 정보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다.					
52. 실내장식에 대한 정보는 책(잡지 포함)이나 친구를 통해서 얻는 편이다.					
53. 현재 우리집의 실내장식은 한국의 전통양식에 가깝다.					
54. 아동방의 경우는 모난 가구를 피하고 색채에도 신경을 써서 성장기 변화에 적합하도록 했다.					
55. 노부모 방의 경우는 좌식생활에 편리하도록 꾸몄다.					
56. 거실이나 부엌 등 공동생활 공간은 가족원 모두가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현대식과 한국 전통양식의 절충식으로 했다.					

Ⅶ. 당신의 집에 있는 가구에 대해 묻습니다. 해당하는 난에 ○표 또는
 ✓ 표하여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57. 가구의 배치는 수시로 바뀌는 편이다.					
58. 싫증이 나면 새가구를 구입하게 된다.					
59. 낡은 가구는 버리지 않고 고치거나 칠을 새로 하여 계속 사용한다.					
60. 친분이 있는 사람과는 가구를 바꿔서 쓰기도 한다.					
61. 사용하던 가구를 남이 주었을 때 별 꺼리낌이 없다.					
62. 재래가구에 대해서는 평소 친밀감을 갖고 있다.					
63. 집에 있는 전통가구의 명칭을 정확히 알고 있다.					
64. 전통가구는 대부분 물려받은 것이나, 가끔은 구입하기도 한다.					
65. 유산이므로 취향에는 맞지 않으나 소장하고 있다.					
66. 물려받은 전통가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현대적 감각에 맞게 개조 후 사용하기도 한다.					
67. 물려받은 전통가구는 없으나, 재래가구가 좋아서 일부러 구입하기도 한다.					
68. 전통가구는 옛스러운 멋이 있어 좋다.					
69. 전통가구는 현대식 가구에 비해 실용적이다.					
70. 전통가구는 실용적이지 못하나 장식품으로 매우 뛰어나다.					
71. 전통가구는 어두운 색상이 싫다.					
72. 전통가구가 놓인 방은 일부로 한지를 바르거나 민속장관을 사용하는 등 실내장식에 신경을 쓴다.					
73. 전통가구는 문화적 유산의 측면에서 그 가치가 높으므로 계속 보존해야 한다.					
74. 전통가구는 아동의 방보다는 아무래도 성인의 방에 놓이는 것이 적합하다.					
75. 전통가구는 가문의 전통을 나타내준다.					
76. 전통가구는 유지, 보관, 손질 등에 있어서 요즘에 생산되는 가구에 비해 번거롭다.					

VII. 다음은 소장하고 있는 가구의 수를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에 ○표 또는 √표하여 주십시오.

77. 현대가구의 수는 몇 종이나 됩니까?

- ①5종 이하 ②6-10종 ③11-15종 ④16-20종 ⑤21종 이상

78. 재래가구의 수는 몇 종이나 됩니까?

- ①7종 이하 ②8-14종 ③15-21종 ④22-28종 ⑤29종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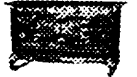












IX. 다음은 현대식 가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사항에 ○표 또는 √표하여 주십시오. (붙박이 가구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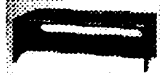















번호	가 구 명	있음	없음	번호	가 구 명	있음	없음
79	의 자 (등받이가 있는 의자 : 책상의자, 식탁의자)			90	책 상		
80	안 락 의 자			91	책 장		
81	이동식 의자 (등받이가 없는 의자)			92	장 식 장		
82	1인 용 소 파			93	서 랫 장		
83	2인 용 소 파			94	그 룯 장		
84	3인 용 소 파			95	이 불 장		
85	탁 자			96	옷 장		
86	보 조 탁 자 (침대협탁)			97	1인 용 침 대		
87	식 탁			98	2인 용 침 대		
88	화 장 대			99	배 식 차**		
89	콘 술*			100	스 탠 드		

콘술* : 조그만 상이나 탁자가 차지할로 벽이나 소파 뒤에 붙여 달도록 설계된 가구, 주로 입구나 통로에 배치

배식차** : 음식물을 나눌 때 쟁반 대신 사용하는 층이 있고 바퀴달린 가구

X. 다음은 전통 가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에 ○표 또는 ✓표하여 주십시오.

번호	가 구 명	있음	없음	번호	가 구 명	있음	없음
101	이층장 (하나로 이어지며, 좌상부에 넓은 판이 붙어 있는 안방용 가구)			109	문갑		
102	삼층장			110	반다지 (전면의 약 절반가량이 상하로 개폐되어 반으로 접어지는 가구)		
103	머리장(단층장)			111	궤 (상부면 약 절반가량이 앞뒤로 개폐되어 접어지는 가구)		
104	약장			112	함		
105	찬장			113	경대		
106	책장			114	탁자 (책, 소품 진열 선반)		
107	이층농 (하나로 되어 있으며, 좌상부에 2층의 안방용 가구, 좌상부에 장과 판은 없음)			115	사방탁자 (벽없는 선반)		
108	뒤주			116	찬탁 (음식, 그릇 선반)		

번호	가 구 명	있음	없음	번호	가 구 명	있음	없음
117	서안 			125	지통(종이꽃이) 		
118	경상(서안의 일종) 			126	등잔 		
119	연상(벼루 상) 			127	초롱 		
120	다과상 			128	목침 		
121	소반 			129	병풍 		
122	고비(편지꽃이) 			130	발 		
123	붓걸이 			131	돛자리 		
124	필통 			132	헛대(옷걸이) 		
기타 그 외 소장하고 있는 전통가구 :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